

어둠이 계속될 때 어둠이 짙어질 때 더 밝은 빛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더욱 기다리며 인내하는 심령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4월 17일 (토) 제 1821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삶의 의미 찾지만... “대단한 게 있을까?”

라이프웨이, ‘팬데믹 겪은 미국인, 삶의 의미/목적 추구 지속되나 깊이 없다’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전면 중지됐던 2020년 악몽에서 깨어난 미국인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탐색됐다.

최근 라이프웨이(Lifeway Research)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년 전과 비교해 오늘날 미국인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궁금해 할 가능성이 더 높지만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력하게 믿지 않는다. 한마디로, 삶을 살아가

면서 더 높은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일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0년 9월 9일부터 23일까지 1,200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으며 2,144명을 대상으로 한 2011년의 조사결과와 비교 분석했다(Americans' Views of Life's Meaning and Purpose Are Changing).

대답을 했다.

“만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자주 의문을 갖는가?”라는 질문에 미국 성인 응답자의 15%는 매일, 11%는 매주, 11%는 매달, 9%는 매년이라 응답했다. 37%는 이런 질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고, 18%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2011년보다 오늘날의 미국인들이 더 많이 의문을 품고 있으며(15% vs 8%), 전혀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자는 감소했다(37% vs 46%). 잘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늘었다(18% vs 12%).

맥코넬은 “천국에 가는 문제는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천국에 갈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사람들의 뇌리를 스치지 않는다”며 “성경은 천국에 당신을 위한 장소가 준비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미국인의 거의 절반은 매년 멈춰 서서 천국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궁금해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성인 5명 중 4명 이상(85%)은 ‘물리적 세계와 사회보다 삶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 비율은 10년 전과 유사하지만 2011년에는 강력하게 동의한 응답자가 67%인 반면 올해는 43%로 줄었다.

이번 연구에서 18-34세와 35-49세 미국인(87%)은 65세 이상(79%)보다 물리적 세계보다 삶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종교와 무관한 사람들은 5명 중 1명(20%)만이 여기에 동의했다.



계획이 있다고 믿는다. 68%는 삶에서 좀 더 깊은 목적을 찾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말한다. 73%는 보다 높은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10년 전과 각각의 비율은 유사하다. 그런데 강력한 동의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동의로 바뀌었다. 강하게 동의하는 응답자는 줄었고,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늘었다.

“모든 개인의 삶에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미국인은 거의 없다”면서, 맥코넬은 “그러나 스스로 목적을 추구하는 데서 뒷걸음질 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더 나은 무엇을 위해 나아가는 이들이 줄면서 인생은 좀 더 비판

적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성인의 59%는 자신의 삶을 위해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했다. 28%는 동의하지 않았다.

종교적 소속이 없는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동의하지 않았다(37%). 기독교 외의 종교를 가진 미국인들도 대부분 동의했다(80%).

크리스천 중에서는 교회 출석을 더 많이 한 이들이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더 많이 응답했다. 한 달에 한 번 이하 교회에 출석한 이들의 51%는 자신의 삶에서 더 높은 목적과 의미를 찾았다고 답했다. 한 달에 1-3번 출석하는 이들의 69%와 한 달에 4번 이상 출석하는 이들의 76%도 같은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시 1층 로비에서 사진전이 진행됐다.

남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

본지 2대 발행인이며 퀸즈장로교회 원로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가 지난 11일 오후 4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대면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고 장영춘 목사는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4월 10일 성금요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계가족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장례식을 치렀다. 1974년 개척해 2012년 은퇴까지 38년간 담임목회를 하고 이후 원로목사로 뒤에서 교회를 지켰던 장 목사였기에 교인들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어 1년 후 추모예배를 계획한 것이다.

담임 김성국 목사는 1년 전을 회고하며 “목사님께서 성금요일에 가시고 4월 17일 천국환송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과 총회,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가족과 모든 성도들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또 특송 “남은 자”(작사 김성국

목사) 찬양 중 상영된 영상에서 직접 나레이션을 한 김성국 목사는 장영춘 목사의 영여명 요셉과 연결한 요셉의 꿈에 대해 언급하며 “그가 남긴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겠다”며 “코로나 팬데믹 위기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며 장 목사님에게 열방을 향해 많은 사역을 감당케 하셨던 것처럼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전했다.

예배는 김성국 목사 인도로 중국어찬양대의 서창에 이어 예배선언, 기도 허경화 장로, 성경봉독,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찬양, 말씀 조문휘 목사(KAPC 총회장), 특별찬양 글로리아싱어즈, 추모사 이용걸 목사, 목사님을 그리워하며 이명옥 전도사, 아버님을 회상하며 장 훈 목사, 특송 강혜영 집사, 축도 이종원 목사(뉴욕노회 노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최혜근 목사



푸른초장 김용희 목사



인문학으로 읽는 비율의 생애 강태광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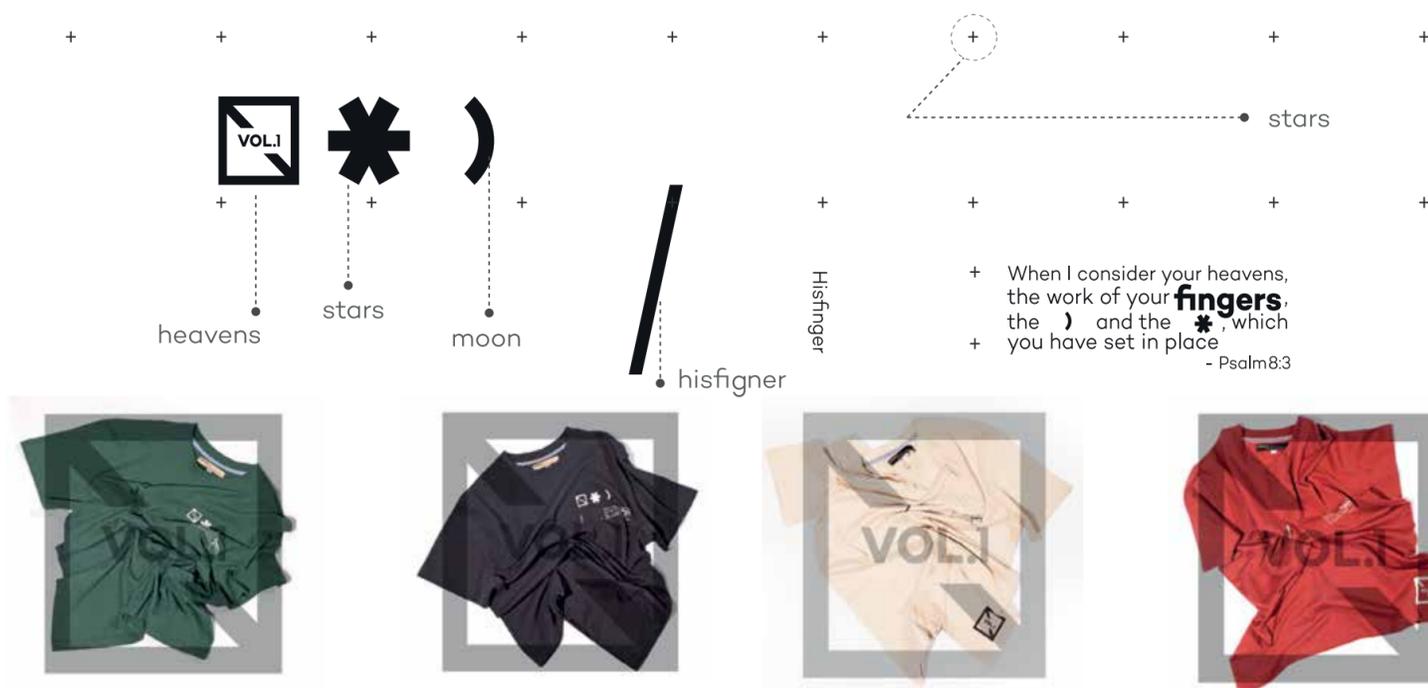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gb001.usg.com / cjb0101@lgb001.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율령,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mall.com 교회단체주문시 할인해드립니다.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 8:3

포스트팬데믹 시대,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자

(2면에서 계속)
법에 명문화된 고용 보호 조치도 실직자의 재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기업들은 경기침체가 끝나도 해고한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지 않는다. 다시 경기가 나빠질 때 내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블랑샤르 교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일시적인 충격일지라도 그 영향은 훨씬 장기적입니다.”

30년 뒤, 블랑샤르 교수는 2007-200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문제를 다시 연구했다. 수백만 명이 장기실업상태에 놓여 있었다. 2010년에

는 실업자 중 거의 절반이 최소 6개월간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충격적으로 높은 수치였다. 이전 50년간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는 평균 13% 정도였기 때문이다.

블랑샤르 교수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코로나발 경제위기로 실업자들의 피해가 오랜 기간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다. 실업기간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기술은 점점 퇴보하고 있다. 일부는 구직활동을 중단했고, 일부는 연방정부의 실직/장애 수당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경기가 확장국면에 접어들면

서 일부 실직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구했다. 블랑샤르 교수는 실업의 이력현상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미국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위기가 불러온 장기실업률 상승세를 최대한 빨리 반전시키고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동경제학자인 재닛 옐런(Janet Yellen) 재무부 장관이 미국 의회에 통 큰(Go big) 경기부양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블랑샤르 교수는 “이번에는 이력현상이 모든 산업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항공산업, 부동산시장, 일반소매업은 위기 이전

과 절대 똑같지 않을 것이다.

하누세크, 레이먼드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블랑샤르 교수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미래의 노동자인 어린 학생들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블랑샤르 교수는 아이들이 학교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레이먼드 연구원은 잃어버린 학습시간을 보충할 수 있는 여름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교육자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과 학업을 정상화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론

약속과 희생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수요일 한국에서 서울과 부산의 시장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1일에 있을 지방선거 당선자가 새 임기를 시작할 때까지 15개월의 잔여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임기이지만 이 선거를 위해 서울시가 부담하는 보궐선거 비용만 해도 무려 487억원으로 새로 선출된 시장의 잔여임기 하루하루마다 평균 1억씩 선거비용이 드는 셈입니다. 선거의 결과는 집권당의 참패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여론입니다. 이번 한국에서의 보궐선거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도 지켜

보면서 정치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아쉬운 점을 나눠봅니다. 무엇보다도 선거를 대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가깝고 근시안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하루 사이에 이뤄지는 투표를 통해 한 사람을 뽑는 제도이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선거가 있기 수 년 전부터 선거에 대한 준비와 자세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몇 년의 시간을 두고 바르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정치라는 수단을 통해 국민들을 섬기다 선거 때가 되면 지금까지 활동하고 살아왔던 후보자의 걸음을 놓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진지한 마음과 자세가 갖추어질 때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선거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세워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총대총 국민들을 어린아이 다루듯이 그렇게 늘 대하다가 선거 때가 되면 갑자기 진지해지고 국민들을 엄정 생각하는 것 같이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는 선거를 너무 소비지적으로 바꾸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번 보궐선거는 서울과 부산 똑같이 시장들의 성추행과 관련되어 갖게 되었습니다.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는 2015년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당헌에 의하면 이번 서울과 부산의 시장선거에서는 후보자를 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을 개정해서 무리하게 후보를 내었지만 낙선했고 오히려 당의 이미지만 추잡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소인배들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입니다. 차라리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고 집권당이 책임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내년 6월에 있을 전국 규모의 선거에서 훨씬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눈앞에 찾아온 이익에 눈이 팔려 자신들이 뱉었던 주장도 다 도로 집어넣는 모습은 마치 '국민을 유지원 아이보다 더 어리게 대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국민을 만만하고 우습게 대하는 자세로 선거에 임하는 모습은 정치인들이 자기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결과가 말해주듯이 당헌을 개정하여 선거에 임했던 결정은 오늘의 이익을 위해 내일을 팔아먹는 졸장부의 선택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정도(正道)를 걷기위해 오늘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하고 어엿하게 내일을 향해 걷는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워집니다.

미국을 바라봅니다. 지난 11월 대선에서 전직 대통령이 낙선하게 된 근처에는 BLM(흑인의 생명도 귀하다) 운동이 있었습니다. 유색인들의 상당수가 이 운동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것이 실수든 고의이든 관계없이 한 생명이 경찰의 무릎에 의해 질식사했을 때 잘못을 떠나 가족을 잃어버린 그 가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따뜻하게 위로했다더라면 선거의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그 가정 하나이지만 수많은 국민들, 특히 유색인들이 그 가정을 통해 자신들의 가정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채워진 작은 희생만 있었더라면 그 끝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자 중의 한 사람이었던 모 대표는 후보자 단일화 후 그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보가 국민들의 머리속에서 그의 미래를 더 밝게 그려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약속과 희생이 만들어내는 선한 열매입니다. 부활절을 지나가며 이 약속과 희생을 가장 아름답게 지켜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보며 정치는 하지 않지만 정치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깊이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hankschoi@gmail.com

남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1면에서 계속)
허경화 장로는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 목사님”이라며 40여년간 말씀충만, 기도충만, 성령충만, 기도충만을 가르쳐 주시며 교회가 교육과 세계선교, 문서선교, 후진양성에 힘쓰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김성국 목사님이 여호수아와 같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능력과 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가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기원했다.

조문휘 목사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딤후 4:7-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도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바란다”며 “인생은 한 번 살고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자는 구원받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으므로 심판이 없고 시상만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졌는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면 첫째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 전쟁의 주적은 사탄이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야 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도 승리한다. 둘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장 목사님의 바톤을 잘 받아 우리도 끝까지 힘있게 달려가야 한다. 셋째, 믿음을 지켜야 한다. 자신과의 싸움도 잘해야 하는데 내 힘이 아니고 주님이 싸우신 후 우리는 뒤처다꺼리만 잘하면 된다”고 말하고 “인생은 끝이 좋

아야 한다. 늘 깨어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할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자”고 말했다.

영생장로교회 원로 이용걸 목사는 “주모사는 처음 해본다”며 중고등학교 때 교역자였던 장영춘 목사와의 추억을 회고하며 “작년 별세하셨을 때 모두들 이민교회의 큰 별이 졌다고 말했다. 개혁신앙의 기수이셨던 장 목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중심, 말씀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옥 전도사는 “장 목사님의 이야기를 담은 ‘이 사람을 보라’라는 책을 준비했는데 출판을 하지 못했다”며 고 장영춘 목사에 대한 교회 사랑과 헌신에 대해 언급하며 “예수님의 흔적을 보여주신 장 목사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회고했다.

아들 장 훈 목사는 “아버지에게 첫째가 하나님, 그다음은 교회, 가족은 세 번째였다”며 2살 때 아버지가 자신을 집에 홀로 두고 심방하러 간 일, 동생들 챙기기는 항상 자신의 몫이었던 이야기, 휘튼대학 졸업식에도 주일이라 오지 않았던 일, 박사학위 받을 땐 꼭 가겠다고 하셨지만 병으로 결국 오시지 못했던 일 등을 추억하며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퀸즈장로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는 광고시간을 통해 장미은 사모님과 자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에서 참석자들이 일어나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다.



고 장영춘 목사 1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순서자들이 기념촬영했다.

녀(장훈 목사, 은영 사모, 은혜 집사)들을 잊지 않고 은교회가 가슴에 담고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모든 교인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교회중지들과 뉴욕교계, 노회 목회자들이 참석했다.

예배 후 참석자들은 교회 1층 로비와 2층 역사관에 전시된 장영춘 목사의 사진과 유품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퀸즈장로교회가 정성껏 준비한 만찬과 선물을 받았다.

고 장영춘 목사는 1932년 황해도 장연에서 출생해 종신대(원), 1968년 도미, 센트럴배티스트신학대학교(Th.M),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Ph.D)을 졸업했다.

1972년 뉴저지장로교회, 1974년 퀸즈장로교회를 개척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많은 사역을 했으나 대표적인 것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동부개척장로회 신학교 학장, 미주크리스천신문 발행인, 아세아연합신학교 이사(부이사장), 세계한인선교대회 공동(대표)의장, 대뉴욕빌리그래함전도대회 대표회장, 뉴욕미국교회협의회 한국대표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한국에서 “살아있는 나침반”(어린이 강단)과 도미 후 “아가페와 필레오의 대화”와 “데오빌로여”를 시작으로 한영설교집 6권, 한영수필집 “짜사랑” 등 총 11권을 출간했다. (유원정 기자)

생장점이 터지는 ZOOM 구약성경일독학교



이애실 대표의 '어? 성경이 읽히네!'를 성경읽기 전문강사로부터 배운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원하게 읽혀줍니다~

개강 날짜 및 시간

- 2021년 4월 7일 ~ 6월 30일
- 매주수요일 7:30pm-9:30pm

- 강의 방법 : Zoom
- 교재 : 성경책, 구약 워크북, 구약읽기 내비게이션

강사진

-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생터성경사역원 LA 지부장)
- 김소연 사모
- 홍에스더 전도사
- 정인주 전문강사
- 나미선 전문강사
- 김미경 전문강사

문의

문의 : 홍에스더 전도사 (213-330-6995, estherhongstar@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길 다 가도록,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등 평생 8천여개의 찬송시를 썼던 ‘찬송시의 어머니’ 패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실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95세로 천국에 갈 때까지 평생 시각장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한 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11살 때 그녀를 사랑해주던 할머니마저

있었고, 38세에 출산한 아기도 잃고 맙니다. 이처럼 그녀의 일생은 끝없는 슬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았던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코로나 사태로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버겁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남니까? 쉽게 무기력해지고, 남을 탓하는 버릇이 생겼습니

까? 어느덧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로 전락했습니까? 더 이상 내 삶속에 주님이 안계신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와 주님과과의 거리를 점검해 보세요. 복귀가 태양과 거리가 멀어 솟듯이,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영적으로 차디찬 얼음덩어리가 됩니다. 주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나의 고단한 삶을 감당할 힘도 사라집니다. 만일 나의 믿음이 얼음덩어리 같이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그리하여 최대한 빨리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만일 나의 믿음이 어둡고 추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침에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달려가세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께로 달려 나가세요. 지금 무엇과 가까이 있습니까? 물질을 가까이 하면 물질주의자가 됩니다. 쾌락을 가까이 하면 쾌락주의자가 됩니다. 거짓을 가까이 하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우상을 가까이 하면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사랑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패니 크로스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주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절망중에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습니다. 고난과 슬픔을 감당할 능력을 얻습니다. 끝까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 ‘산 소망(The living hope)’을 붙잡습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약4:8).

푸/른/초/장

김용익 목사
(은혜주신장로교회)



기도 동역자들에게 알려 기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속히 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다.

3.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막16:17-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지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져 우울증과 합병증을 치료해주신 달라스 성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9년 8월 매사추세츠 무디 센터에 부흥성회 강사로 초청되었다. 치유은사, 수련회가 7일 동안 있었다. 대상은 중고등 학생부터 장년층까지 말씀전하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팀 중에 달라스에서 온 찬양 리더학생 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

고 말이 우둔했지만 인사하기에 처음 듣는 음성이라 “누구세요? 물으니 “제가 죽어 있던 장 집사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인사를 했다. 한 달이 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의식불명이었는데, 의식이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전화로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말이 잘 안되지만 찬양을 따라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면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린다.

달라스 장 집사 부인이 지난 주에 있었던 일들을 말했다. 몇 일 전에 병원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니 호흡기를 떼자고 시각에 다른 의사가 지나가다가 하루만 더 연기해보고 호스를 떼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다음날 달라스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심방갔을 때 의식이 없지만 손이 조금 움직여서 급히 의사분에게 알려 다행히 살아났다고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기적의 하나님이다. 병든 자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

함께 몰려와, 잠도 못자고, 살 가치도 없고, 죽으면 편하다고 하면서, 가족에게 짜증내고 대화도 피하고 심각하다고 한다. 그래서 달라스 교회 부흥회로 일정을 잡고 비행기 타고 10월 19일 달라스 막내딸집에 도착하자. 바로 달라스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재활센터로 심방을 갔다.

환자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고, 걱정, 근심, 불안, 공포, 배신감, 미래생황고, 상처 등으로 근심할 때 악한 영 마귀, 자살 영이 들어가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제는 우울증과 상처를 통한 자살영이 지배하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마귀대적사역을 해서 악한 영을 쫓아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성령님의 능력 앞에서 쫓겨 나갈 수밖에 없다. 벤전5: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악한 마귀가 나가고 나니까 환자 얼굴이 밝아지고 기뻐하며 마음이 시원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편안하다고 좋아한다. 그동안 잠을 못자서 고통의 밤이었는데 그날 밤 잠도 아침까지 잘 잤다고 감사 전화가 왔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을 주었다.

그 후 자살영이 떠나가고 우울증도 회복되어 병원도 다시 시작했고 가끔씩 영적으로 힘들 때면 전화로 영적인 상담과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의료선교도 해야겠다고 한다.

결론

마가복음 16: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는 온갖 더러운 것과 고통과 질병, 낙심, 자살, 분쟁을 가져오는 귀신을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버리고, 예수 집 팔아 병원비용 지불한 것,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 걱정, 그리고 더욱 낙심한 것은 본인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을 때 병원측과 가족이 가능성이 없다고 호스 빼자고 합의하는 말을 다 들었기에 더욱 실망하고 가족도 자기도 아내까지도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 상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가

yikim3535@gmail.com

믿음의 기도는 질병이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18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약5:15-16)고 성경이 증거 하고 있다.

“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 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약1:6-8). 마태복음 21:2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하셨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 하고 있다.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들과 같이 육신적으로는 아무중거도 체험도 없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손에 잡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를 들으시는 지도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마음에 평강이 온다.

삼상1:10-18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17-18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했다.

한나가 기도하고 난 후 근심 빛이 없고 평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불안해하며 평안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많은 성도들이 죄짐, 문제 짐, 질병의 짐을 주님 앞에 내 려놓고 기도하고난 후 에는 다시 그 모든 짐을 다시 가지고 가려한다. 응답이 될까? 안될까? 내 기도 들어주실까? 하고 의심을 한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주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에서 아름답게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우리 앞에 어떤 큰 문제가 가로 막고 있더라도, 믿음으로 해결된다고 기도하고 선포해야한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힘이 나고, 의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2. 믿음으로 서로 기도 해야 한다.

약5: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

리가 기도할 때 서로 서로 도우며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것이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모든 지체가 아픈 것과 같이 함께 형제자매가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것을 내 자신이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느끼며 하는 사랑의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도는 혼자서 고통을 이기고 참아내겠다는 분들도 있다.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있고 해서 비밀로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은 성경적이지 아니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자존심 때문에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직분자들 체험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병은 자랑하란 말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병들 수 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서로서로

이 없다고 기도요청을 했다. 달라스에서 유명한 내과 의사인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새벽과 저녁 집회 때마다 합심으로 기도했다.

집회를 마치고 뉴욕에 도착한 며칠 후 달라스 교회 사모님의 전화기도 요청이 왔다. 달라스 뇌출혈 환자는 의식이 없지만 환자부인과 달라스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병실에서 전화 마이크 켜놓고 전화로 뉴욕에서 달라스 병실로 기도를 시작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통성기도를 하였다. 환자의 상태는 의식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병실에 전화를 켜놓고 합심으로 찬양하며 통성기도(우리말, 방언기도)하며 약1시간 정도 치유기도시간을 가졌다.

한 달이 지나도록 의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화기도 시작할 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

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이 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제책에 맞음으로 너희는 마음을 얻었나니”(벤전2:24).

그 후에도 매주 화요일 뉴욕에서 달라스로 전화기 켜놓고 찬송, 말씀, 통성기도 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다. 많이 회복되어 재활치료센터로 옮겨 치료 받으면서 휠체어타고 다니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 부인집사께서 하소연하는데, 환자 남편이 병원격벽, 내가 다시 병원을 운영할 수 있을까, 집 팔아 병원비용 지불한 것,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염려 걱정, 그리고 더욱 낙심한 것은 본인이 의식불명상태에 있을 때 병원측과 가족이 가능성이 없다고 호스 빼자고 합의하는 말을 다 들었기에 더욱 실망하고 가족도 자기도 아내까지도 나를 버렸다는 배신감, 상처, 걱정 근심 염려 불안 공포가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새라김 사도 (TVNG 설립자, TVNEXT.org)

AB101은 고교졸업 위한 의무수업까지 하게 하는 발의안 - CA 교육청 의회 공청회에서 통과 What's Next?

법명: AB101-Pupil instruction: high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s: ethnic studies (2021-2022). Ethnic Studies Model Curriculum(ESMC, 민족문화 모델 커리큘럼)의 실제!

자녀들에게 막시즘(공산주의) 사상을 "사회정의와 문화"로 왜곡시키고 세뇌시키는 교육들을 고등학교 졸업을 위한 의무적인 수업으로 듣게 하는 악법 AB101이 교육청에서 결국 통과되어 계빈 뉴섬 주지사 책상으로 올라갔습니다.

ESMC는 지난 4년 동안 수많은 그리고 뜨거운 논쟁이 있어 왔을 정도로 범법과 달리 평범한 민족 문화수업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시민들, 특별히 학부모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그들의 가치관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세뇌까지 하는 것이라 하며 그것은 더 더욱이 문제가 크며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요!

커리큘럼을 직접 읽어본 저희 단체나 저희와 동역하는 미국단체들은 2019년에 나온 것을 반대하고 이번에 2021년에 다시 나온 900장이 넘는 커리큘럼을 검토하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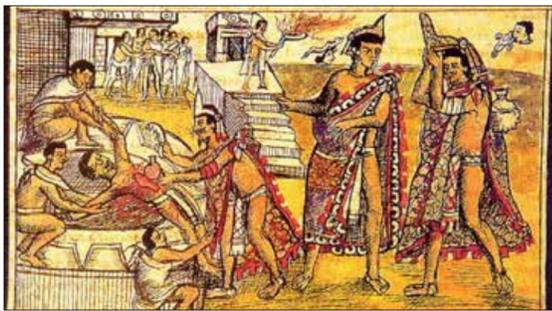
이 악법은 2020년에도 AB331(민주당 발의)로 나왔다가 계빈 뉴섬이 기적적으로 거절하여 들어갔다가 2021년 다시 AB101로 재탄생한 악법입니다. 악법 발의안 발제자들은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 캘리포니아 동성애 의회: Medina, Cristina Garcia, Low, Ramos, and Weber과 상원의원 Durazo(민주당)입니다.

ESMC, 무엇이 문제인가?

900여장에서 읽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만 정리하여 몇 개 적습니다.

1.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워진,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역사를 포함하고 왜곡하여 미국 건립사, 미국의 역사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예) 미국의 독립기념일 1776년이 아닌 1619년으로 돌아가게끔 이끅니다.

2. ESMC의 기본 틀, 기초부터 매우 한쪽으로만 치우친 정치적 사상들, 특별히 막시즘 공산주의 사상들이 곳곳에 은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점적으로 호소하듯이 "사회정의"로 둔갑하여 아이들을 세뇌시킬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



입니다.

3. 학습적이고 자유로운 논쟁을 통한 배움이 아닌, 반기독교/반미 커리큘럼의 방향대로 그리고 주정부가 만든 틀에 맞춰서 가야만 고등학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켰습니다.

4.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정치인들과 인권운동가들이 그들이 지지하는 특정 단체들, 무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종차별" "인권차별"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진정한 사회정의의 구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자극시키고 세뇌시켜서 '사회과' '가정과' '종교(특정종교만, 기독교, 유대교 등) 과'가 마치 사회정의인 것처럼 미스리드(mislead)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5. 수많은 다민족의 종교들을 문화와 민족연구의 부분으로 배우고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심지어는 Aztek(아즈텍)의

Human Sacrifice/baby sacrifice 인신제사 및 신생아제사 같은 거까지도 문화의 일부로 가르치며 아이들과 주권기초까지 하게하며 이런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미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외 900장 속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계빈 뉴섬 주지사에게 직접 올라갈 것입니다. 계빈이 이번에도 반대하도록 반대서명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Tvnex.org).

차세대의 영혼을 지키려는 자들과 흠치려는 자들의 공청

한지라 EMSC가 얼마나 학생들/자녀들에게 부적합한지 알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가장 황당무개했던것은 주정부 교육청 의회의 공공장소에서 캘리포니아의 최초 Native American 의원으로 뽑혔던 James Ramos(민주당)가 나와서 공청회 기도를 하고 Native Indian들의 영혼을 달라는 EARTH MOTHER(땅의 신)을 부르며 chanting(알아듣지 못하는 주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또 다른 문화와 그 문화의 신을 아이들이 배우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인지' 라고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교육청 의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2. 4월 7일 열린 두 번째 공청회에서의 해프닝-권력 남용!

이번에도 반대의 목소리가 찬성보다 훨씬 더 많아지자, 공청회 의장인 Patrick O'Donnell(민주당)은 시간이 없다고 세션을 잘라버렸습니다.

부위원장(Vice Chair)인 Kevin Kiley의원(공화당)이 이진 비민주주의적이지 않음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Patrick(민주당)은 VP에게 "지금쯤 당신이 여기서 쇼를 할 시간이 아니야"라고 비웃었습니다. VP인 Kevin이 "쇼라니? 우리 모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책임이 있다"라고 재 강요하자 Patrick은 냉정한 목소리로 단번에 시민들의 정언전화를 끄고 시민들의 증언을 호스트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의 대표는 그의 권력을 남용했으며,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듣기 거부하는 캘리포니아 교육청의 태도는 절대로 민주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지사에게 전화/이메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Tvnex.org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문의: tvnext.org@gmail.com

희 전쟁터의 모습(마18:6)

1. 첫 번째 공청회에서 일어난 일들-우상숭배가 교육인가?

지난 3월 18일 California State Board of Education(캘리포니아 교육청의회) 첫 번째 공청회에서 거의 8시간동안의 찬반논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교육청의회는 11-0으로 만장일치 통과를 시켰습니다. 저희단체와 수많은 단체/개인들의 반대가 찬성의 목소리보다 3배가 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미 통과시키려고 결정을 하고 나온듯 합니다.

주정부 교육청 의회 공청회에서 Earth Mother-땅의 신에게 주문기도라니!

EMSC를 반대하는 저희 몇몇 단체 대표들이 수개월간 이미 900여장의 커리큘럼을 리뷰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난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두꺼운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1) 휘장에 왜 그룹을 수놓았는지, 두께는 얼마나 되는지요? 2) 휘장은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3)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무슨 영적 교훈을 줍니까? - 하버에서 이희은

A: 4월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있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성전의 휘장에 관해 지시하실 때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베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금 갈고리로 네 기둥위에 드리우되 그 네 기둥들을 조각목으로 만들고"(출26:31-32)라고 했습니다. 휘장은 고운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리스도 자신의 온전한 거룩과 의를 나타냅니다. 휘장 위에는 3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으로 된 그룹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휘장에 대한 히

휘장에 수놓은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

브리서의 관점은 히브리서 10:20절에 나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길이니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히 10:20).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흰색의 네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음을 보는데 그 휘장위에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그룹들은 창세기 3:24절을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에덴동산의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지성소인 속죄소에 있었습니다(출25:22 참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바로 앞을 막고 있는 이 휘장에 그룹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휘장에 수놓아진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휘장은 일년에 단 한번 대속죄일(7월10일)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께가 6인치(15센티미터) 정도는 되었을 것이기에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반대 방향으로 끌어도 그것을 찢지 못합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2가지 사실은 1)휘장은 한 번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번의 죽으심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했습니다. 2)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젠 제사장들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휘장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길이 열렸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568-0191, Fax: (82)2-562-3770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3, Fax: (031)977-8382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윤진석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석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Tel: (02)525-7767, HP: (017)237-8258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승도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Tel: (02)732-2341~3, 사백(110-290)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Tel: (82)2-842-1968, 사백(110)2-2-842-1968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9927-1008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9-4813, 331-284-7204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5, Fax: (82)32-527-1005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성신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Tel: (82)2-793-7740, Fax: 302-67 (140-031)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안녕'이라는 흔한 말

굿모닝 미스 해나! 안녕! 안녕! 미스해나, 안녕!! 매주 목요일 프리스쿨 한국어 수업을 위해 아이들이 교실로 들어오면서 하는 인사는 각각 달라서 누가 듣는다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일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다르게 인사를 해도 나의 인사는 정확하게 "안녕!"이다. 우리교회 프리스쿨 디렉터가 혹시 한국어 수업을 해주실 수 있냐고 제안했을 때 이미 다른 프리스쿨에 파트타임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서 망설이며 생

각해보겠다고 했다. 스케줄을 조정하기도 어렵고, 또 수업준비를 더 해야 하는 일도 부담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25분의 한국어 수업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도록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러 나라, 다른 인종, 다양한 언어가 있고, 우리는 각각 다르지만,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안녕'이라는 인사 하나라도 알려주면 매우 성

공적인 수업이라고 생각했다. 학기가 시작하고, 겨우 한 달 만에 아이들은 어느새 '안녕' 하고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들어보니, 교회 주차장이나, 복도에서 남편을 만나면, 안녕이라고 먼저 인사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 아이들은 더 빨리 받아들이고, 더 잘해냈다. 코로나로 모두들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백신이 나오고, 빠르게 접종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희망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뉴스에서 나오는 아시안헤이커라임은 바이러스보다 더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한다. 이민자의 나라, 다인종국가 미국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남편과 나도 DC에서 열린 Stop Asian Hate 랠리에 함께 참석했다. 솔직히 나는 그 전날 토요일에 백신 1차 접종을 해서 주말오후에 열리는 랠리 참석을 망설였는데, 고등학생인 딸이 가 엄마도 함께 꼭 가시면 좋겠

다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스피크아웃하면 좋겠다고 하며, 핑계로 망설인 나를 부끄럽게 했다. 주일예배를 마친 후 참석한 랠리에는 아시안 뿐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차별반대를 외쳤다. 이런 랠리를 해야 하는 현실이 마음 아팠지만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프리스쿨 학생들은 아시안, 아프리카아메리칸, 히스패닉,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다수는 백인 학생들이다. 처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5살 백인남자 아이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나에게 왜 이상한 말을 하느냐? 못 알아듣겠다. 영어로 말해라. 미국은 영어로만 말한다 하며 따지듯 물었다. 아이의 당당한 요구와 질문이 나는 너무 귀여웠고, 나는 그 아이에게 아주 좋은 얘기라고 웃으며 답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People are all different!" 우

리는 모두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각 만들어주셨고, 열골도, 키도 다르고,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그것을 존중해야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배워야 한다고 대답해주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고 얘기해주었다. 아이가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는 나에게 다시 화내지 않았고,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며, 특히 한글 동물단어 '코끼리'를 엄청 좋아하는 학생이 되었다. 이 아이를 통해 나는 더 열심히 한국어수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곳 노던 버지니아는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데도 아직도 타인종에 대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이다. 뉴스에 나오는 범죄들이 맨해튼이나, LA 대도시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함께 살고 있으나, 존중하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픔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인종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가짐이라 생각된다. 가을학기부터는 학교들이 다시 오픈하고 정상수업을 할 것을 기대한다. 다시 한국어 수업도 시작되면 나는 더 열심히 재밌게 준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한다. 또 아이들에게 사랑도 더 많이 주고, 아이들과 각 가정을 위한 기도도 더 많이 하려한다.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어렴풋한 기억에 옛날 프리스쿨에서 한국어 배웠던 것 같아... 아... 나 한국어 인사도 아는데 하며 '안녕' 하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것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34).

songje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한스 킹 독일 튀빙겐대 명예교수 별세

세계적 신학자인 한스 킹 독일 튀빙겐대 명예교수가 6일 별세했다. 향년 93세. 킹 교수는 로마가톨릭 사제이자 신학자이지만 가장 개신교적인 신학자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를 비판하는 등 가톨릭교회의 변화를 추구해왔다. 개신교계와도 교류가 깊어 지난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에는 교황청을 향해 마르틴 루터를 복권하고 개신교회와 화합하자고 요구하기도 했다. 스위스 태생인 킹 교수는 1957년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60년부터 튀빙겐대 가톨릭 신학 교수로 활동했다. 1962년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후 신학 지문위원으로 활동했으나 1979년 교황 무오설, 성찬과 미사, 사제의 권위 등 가톨릭교회의 전통 교리를 비판해 바티칸으로부터 신학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튀빙겐대는 킹 교수를 신학 교수직이 아닌 개인적인 교회일치 신학 교수직에 임명했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 의장을 역임했으며, 96년 튀빙겐대 퇴임한 후 세계윤리재단 회장으로 선출돼 활동해왔다. 킹 교수는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오대학교 파리 소르본대 박사 과정에서 개신교 신학자인 칼 바르트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의 본질, 믿음과 계시의 중요성 등에 대한 바르트의 신학이 자신을 지탱하는 밑받침이 됐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50권이 넘는 그의 저서는 세계 신학계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교회'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현대의 대답' 등 3부작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세계 3대 종교를 다룬 저작, '그리스도교' '한스 킹의 유대교' '한스 킹의 이슬람'도 유명하다.

美 연방법원, "기독교 학생단체 보호"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기독교 학생 단체의 지위를 박탈한 대학에 단체를 보호하도록 명령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2017년 10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주립대학교는 학내 기독교 단체 '인터버시티 크리스천 펠로우십(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의 정관이 가입 학생에게 기독교 신념에 동의하도록 요구한다며 차별적이라고 판단, 단체의 등록을 철회했다. 그러자 인터버시티는 2018년 3월 대학의 이사회, 행정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 미시건 동부지법의 로버트 H. 클랜드(Robert H. Cleland) 판사는 대학의 행동이 수정헌법 제1조의 "심장을 강타(strike at the heart)"하고, "헌법에 노골적인 불쾌감(obviously odious)을 안겨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어 그는 "종교단체에 대한 대학의 분열적이고 차별적인 대우는 헌법의 자유 운동 조항



(Free Exercise Clause)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클럽의 리더십을 지지하려는 학교의 시도는 "단언컨대 헌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판사는 "웨인주립대학이 단체의 내부 경영권, 언론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운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동시에, 기독교 단체의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학생 단체로서의) 혜택이 거부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미국 최대 캠퍼스 단체 중 하나인 인터버시티는 학내 성경 연구와 중요한 토론을 제공하며 75년간 웨인주립대학에 속한 기독교 단체였다. 인터버시티 소송 대리를 맡았던 종교자유법률단체 '베크트 펀드(Becket Fund)'는 소송 당시에 "대학이 형제회에는 남성지도자, 여성운동 클럽에는 여성지도자, 흑인미국인클럽에는 흑인미국인지도자만 두는 것은 정당하게 허용한다"며 "때문에 기독교클럽이 기독교지도자만 두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또 대학 측이 아마다야(Ahmadiyya) 무슬림학생회를 학생 단체로 인정하면서도 기독교 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미시건 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2018년 소송이 제기된 지 이틀 만에 인터버시티 철회 결정을 유보했지만, 여전히 단체의 지위를 박탈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달 제8항소법원은 2017년 아이오와 대학이 지도자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피하도록 당부한 신앙 성명을 낸 학내 기독교 단체인 '비지니스 리더스 인 크라이스트'의 자격을 박탈한 데 대해 "아이오와 대학의 행정진들이 종교 학생 단체를 차별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유명인들 잇단 충격 고백

웹사이트 '하나님을 갈망하기'(DesiringGod.org) 작가이자 '더 트라우마 오브 독트린'(The Trauma of Doctrine)을 저술한 폴 맥스웰(Paul Maxwell)이 자신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선언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맥스웰 작가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들과 만남이다. 나는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준비도 됐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모든 친구들과 이곳에서 받은 지지를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기독교인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느낌이고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며,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어떤 종류의 만남을 가질 수 있을지 발견하고 싶다.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난 정말 좋은 곳에 있으며, 아마 (이곳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지점일 것이다. 처음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내 인생을 사랑한다"고 했다. 신학박사이기도 한 맥스웰 작가는 신학, 트라



우마, 운동에 관해 글을 썼었다. 그는 "당신이 기독교를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것이며, 실제로는 정말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남긴 독자에게 "다만 당신이 날 사랑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싶다. 나도 안다. 그리고 사랑으로 받았다. 당신이 내 영혼의 상태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SNS 이용해 내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도 안다. 이것은 좋은 일이며, 사랑할 만한 일이다. 그리고 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다. 맥스웰 작가는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유명 기독교인들 중 가장 최근의 인물이다. 작년 캐나다 록 밴드인 호크 넬슨의 보컬리스트 존 스테인거드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했다"면서 "하루 밤 사이에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했다. 2019년에는 기독교 베스트셀러였던 '노 데이팅'(I Kissed Dating Goodbye) 저자 조슈아 해리스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신앙생활을 위한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 여기에 마음이 열려 있길 원하지만, 지금으로선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플로리다 잭슨빌에 위치한 실로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 H. B. 찰스 주니어 목사는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이 서구 교회에 '경고'로 작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찰스 주니어 목사는 "교회 예배는 젊은 세대의 제자와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다져주는 핵심"이라며 "믿음의 인내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날 붙들고 계신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찬양할 필요가 있다. 신앙을 쌓고 신앙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이국적이거나 특별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목회자와 예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표류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목회자와 예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실함을 선언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이러한 표류는 계속될 것이다. 다음 세대에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

북한 '꽃제비' 소년, 영국 지방의원 도전

"기적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풍부한 경력과 경험을 쌓아 북한인의 자유와 민주화,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게 사명입니다." 영국 지방선거에 출마한 티머시 조씨(35·한국명 조국성·사진)의 당찬 각오다. 조씨는 12일 국민일보와의 전화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다음 달 6일 실시되는 영국 지방선거의 맨체스터 수도권 텐턴사우스 지역 보수당 구의원 후보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 지역 선거 관련 게시판에는 노동당, 녹색당 등의 후보와 함께 보수당 후보 조 씨의 이름이 올랐다. 영국에서 탈북민이 지방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함경북도 정진 출신 박지현 씨가 맨체스터 수도권의 다른 지역에 보수당 후보로 출마해 현재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북한에서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어린 아이) 생활을 했다고 털어놨다. 배고프고 힘든 날이 계속됐다. 결국 2004년 탈북, 중국 등을 거쳐 2008년 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한 탈북민 출신 영국 시민이 됐다. "중국 상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한국인



아저씨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아저씨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해 보라고 했고 난생 처음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읽었고 하나님께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을 했습니다." 이후 영어를 배우고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과 리버풀대 대학원에서 국제관계 안보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현재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APPG-NK)의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다. 조 씨는 출마 지역이 야당인 노동당 강세 지역이지만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힘들 때마다 거리에서 잠을 자고, 중국 체포돼 복송 위기에 몰렸을 때 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끝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때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진다"고 했다. 조 씨는 경기 부천 하나교회회 조은성(54) 목사의 아들이다. 조 목사는 1997년 2월 탈북, 중국에서 4년여 살다가 동남아시아를 거쳐 2001년 7월 한국에 왔다. 이 과정에서 아들 조 씨를 잃어버렸고 중국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8년 만에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조 목사의 가정은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섬겼다. 북한에 비록 종교의 자유가 없음에도, 지하교회에서 당국의 감시와 박해를 피하며 기독교 신앙을 면면히 이어온 '그루터기 신앙인'이었던 것이다. 조 목사는 "아들이 원래 치공학을 전공했다. 그런데 영국에서 생활하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한반도 통일에 이바지하는 게 소원이라며 전공을 바꿨다.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믿는다. 능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는 뇌질환, 생존자34% 정신·신경증 진단"

코로나19를 호흡기 감염 질환을 넘어 뇌 질환의 일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6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이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the Lancet)'에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해 "코로나19 생존자의 34%가 병에서 회복된 지 6개월 이내 신경학적·심리학적 질환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연구자들은 코로나19를 앓았던 미국인 23만6000명의 건강 기록을 분석했다. 코로나19가 인체에 미치는 신경정신적 영향을 살펴본 연구 중에선 가장 큰 규모다.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를 받은 이들이 받아든 가장 흔한 진단명은 '불안'으로 17%를 차지했다. 14%는 기분장애 증상이었다. 특히 코로나19에서 회복된 이들은 독감에 비해 정신질환 및 신경증을 앓을 가능성이 4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들에서 회복된 이들과 비교했을 때도 코로나19 생존자들이 정신질환 및 신경증을 겪을 가능성이 16%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환자 50명 중 1명꼴로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혈류가 감소해 신경학적 장애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연구에 참여한 무사 사미 영국 노팅엄대 정신의학과 부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와 신경정신과적 합병증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연구집단 연구"라며 "코로나19를 뇌 질환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19. 남궁염(1888-1966)

남궁염(南宮炎)은 1888년 3월 17일에 서울 정동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 중추부도사였던 남궁영의 아들이자, 구한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와 언론인이었고, 찬송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작사자인 한서 남궁영 장로의 외아들이었다. 그는 배재학당을 거쳐 경성관립영어학교를 졸업했다. 아버지가 양양 군수로 있던 1906년 11월 초에 개화파 박영효의 도움으로 최정익과 함께 상항에 입항하여 그 해에 옥골랜드 공립관에서 거주하면서 공부하기를 서둘렀다. 그는 미국에서 데이비트(David)으로 통했다.

련한 후 서면 여선교사는 두 가지 사역을 감당했다. 한편, 서면 여선교사는 기숙사를 통하여 한인 노동이 주자에게 직장을 알선하며, 한인 유학생에게 학업을 돕는 목적을 세웠다. 그리고 매일 학교를 개설하여 서면 선교사가 교장이 되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교사가 되어 한인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여름방학 때 정규 학교제도를 가동하여 남가주 대학교, 학원 Academies,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유학생이 공부할 경우 한 두 학년을 월반할 수 있었다. 본 매일 학교가 학교



남궁염(1916년)

흥우가 통역을 맡았다. 토요일에 엠넷 청년회 활동이 있었으며 금요일에는 성경공부반을 운영하였다. 본 예배처소는 북미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이다. 본 교회는 2017년 현재 나성한인연합감리교회가 되어 있다.

1906년 3월 28일 자의 '공립신보'에 따르면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500여명 가운데 장로교인이 세례교인 59명과 원일교인 53명으로 총 112명이었고 감리교 교인은 총 80여 명이었고. 이 80여 명이 설교자 남궁염의 설교목회 영역에 포함되었다고 보면 된다.

1907년 남가주연회는 한인 예배처소가 부흥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 해 3월 28일에 남궁염은 박형모, 신봉희, 염달욱과 함께 대구의 서상돈과 김광제가 받기한 1,300만원의 국제보상취지서를 발표하며 나라사랑에 성금 뛰어 들었다.

1908년 8월 남궁염은 남가주대학교 예비과 2학년이었다. 신흥우는 남가주대학교 3학년에, 신봉희가 남가주대학교 예비과 3학년에, 방화중과 이순기가 중학교 2학년에 그리고 전시중이 1학년에 재학했다. 남궁염은 물론 이들은 모두 나성한인감리교회 한인기숙사에서 생활했을 것으로 본다.

미약하지만 예배처소가 한인 유학생과 한인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자부심이 컸고, 본 한인사역이 한인 선교사 훈련학교와 방불하여 이들 한인이 한국과 미주의 한인들에게 끼칠 큰 영향력을 기대할 수 있었다.

나성한인사역은 '일본사역'하에 있었으나 '나성도시선교회'의 별도사역으로 구별되었다. 1908년에는 '나성도시선교회' 외에 남가주대학교 이사였

한금하여 다른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1908년 12월 21일에 상항한인감리교회가 출판하던 '대도' 제1권 제1호는 "로스앤젤레스 한인 미미교회(나성한인감리교회)는 미국에서 제일 먼저 설치된 한인교회라. 비록 교우는 많지 못하나 범사에 재미있게 지낸다더라"고 희망찬 보도를 내보냈다.

1909년 나성한인사역이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연회로 이입되어, 본 연회 감독인 존 W. 와드만 목사는 한인사역을 위하여 300달러의 예산을 청구하였다. 이듬해 예배처소가 매그놀리아 애비뉴 1620번지로 이전했다. 그런데 그해 1월 16일 주일 밤 교회 재정 조사라는 이유로 구타하고 칼로 옷을 찢는 등 예배당 안에서 풍파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는 후 그해 봄에 재정 부족으로 한인사역을 폐쇄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교인들이 매삭의연금을 내어 한인사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남궁염과 신흥우가 계속 사역하기로 허락했다.

남궁염의 유학을 이끌어준 신흥우가 남가주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고 1911년 4월에 한국으로 귀국하던 그달에 남궁염은 나성에서 틈틈이 쓴 '운변술'을 출판했다.

'로벗슨 한인연합감리교회 85년사'에 따르면 김인제 전도사가 귀국한 후 염달욱 전도사가 김인제 전도사를 이어 나성한인감리교회를 목회했다.



뉴욕한인교회

대학원을 졸업한 1918년에 남궁염은 워싱턴DC에 있는 시큐리티 스토리지 회사의 사무원으로 취직했다가 워싱턴 은행원을 역임하였다. 이 기간 그는 북미대한인유학생회 뉴욕지부 고문으로 선임되면서 이용직과 함께 북미대한인유학생회의 목적과 수단 의 요령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푸에블로 한인 일동과 이용직과 함께 "공부 안 하는 학생에게 경고문"을 신한민보에 게재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남 이승만을 만나면서 그는 1922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위원으로 피선되었고, 1924년에는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재미 한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하였다.

그 후 남궁염은 뉴욕으로 이동하였다. 뉴욕에서 직업소개소와 자기 사업을 운영하면서 뉴욕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였다. 1924년 8월 20일 오후 8시에 본 교회에서 김영섭 목사의 집례로 우남 이승만이 소개한 우흥태의 딸 우조연(우복자)과 결혼했다. 그는 1932년 1월 31일에 안정수, 장석영, 이철원 등 7인 이사 중 하나로 선임되었는데 그해 6월 12일 주일에 설교를 마친 후 특별총회를 열고,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윤병구 목사는 4개월간 휴가하고 그의 사례비 전체를 교회에 헌금하며, 윤 목사의 사례비로 여름 동안 교회재정을 정리하고, 정태진이 임시로 교회 목사로 봉직하며, 교회 청소부 1명을 임명하기로 하였다. 교인들은 윤 목사의 희생과 노력을 치하했지만 7인 이사들의 헌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궁염의 교회 봉사는 1934년에도 이어져 본 교회 이사와 이사회 재정위원도 역임했으며, 1937년부터 1939년까지 교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1942년에는 건축부 회원으로 봉사했다.

남궁염은 1928년에 조직원 뉴욕에서 대한인동지회 임원, 1933년에는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의 남궁염의 흥천 묘비 뉴욕지부 대표 후보, 1941년에는 다시 구미위원부 위원, 1942년 이후 북미동지회 총부장,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경제위원 등의 직책에서 독립운동을 노력했다. 조국이 해방된 후 남궁염은 초대 뉴욕영사와 뉴욕총영사를 역임하면서 외교관으로 활동했다. 4.19추진 우남 이승만의 하야 후 남궁염은 모든 공직을 사직하고 하와이로 이동했고, 골리브감리교회에 출석했다. 그 후 심장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는 1966년 5월 23일 와하아와 제너럴 병원에서 향년 77세로 소천하였다 다음 달 1일에 누이인 매모리얼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가 1974년에 강원도 흥천 선영에 안장되었다. 2011년 그의 독립운동을 쉼하여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damiyen_sohn@gmail.com

남궁염 장로 외아들로 도미 후 나성, 뉴욕에서 독립운동과 사역 해방 후 초대 뉴욕(총)영사 역임, 이승만 하야 후 하와이로 이주

내에 '고용부'를 두어 학교 재정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한국 교회의 삼자운동을 연상케 한다. 한인 유학생들은 노동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했고, 기숙사비도 냈으며, 한인 이민자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음식을 구매하여 자취하였다. 신흥우는 위급할 때 신속하게 한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대기했다. 1906년 12월에 박영순이 운영하는 한인여관이 있었는데 이곳에는 주로 한인노동자들이 묵었다.

다른 한편, 서면 여선교사는 예배당을 통해 전도하였다. 한인 유학생들은 백인 나성제일감리교회에 등록하여 주일아침에는 나성제일감리교회 영어에에 참석한 후 바로 서면 여선교사가 인도하는 주일학교에 출석했다. 그리고 주일후에는 한인기숙사의 예배처소에서 한국어 주일 예배가 있었는데 남궁염 외에도 신흥우, 홍승학, 염달욱, 김우제 등도 설교를 담당했고, 서면 선교사가 설교할 경우 신

던 A.W. 애드킨슨 박사와 남가주연회 감독이 특별히 협력하였다. 1908년 현재 재적수는 신흥우를 포함하여 16명이었다. 한 달 건물 대여비가 18달러였고, 서면 선교사의 한 달 봉급이 25달러이었던 반면에 신흥우의 한 달 봉급은 20달러이었다. 이로써 한인사역에 필요했던 예산은 한 달에 60달러였고, 1년에 756달러에 이르렀다. 미국 남감리교의 '내지선교부'와 '교회연장부' 등 두 기관이 285달러를 헌금했고, 그 외는 '나성도시선교회'가 후원했다. 그리고 기숙사비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다. 1908년 나성의 헌트 부인은 비록 가난했지만 손수 만든 '주머니'를 판매한 수익금을 한인 전도를 위하여



남궁염의 가족

뉴욕한인감리교회 이사

유학생 송충익에게서 50달러와 여러 명의 후원을 받은 남궁염은 절친한 친구 신흥우가 귀국하던 1911년의 9월에 나성을 떠나 상항을 방문하고 그달 7일 오전 9시에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버지니아로 향했다. 그는 버지니아주 애쉬랜드에 있는 렌들프 메론대학의 가톨릭에 입학하였다. 재학 중 그는 워싱턴대학에 가입했으며, YMCA 사역자로 활동했고, 성경공부 리더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915년부터 1년간 생물학 부강사로 학생을 가르치면서 교수경력을 쌓았고 용돈도 벌 수 있었다. 1916년에 그는 본 대학을 졸업하고 문학을 취득했다. 본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는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치경제학을 전공했다. 이 기간 그는 차태피드 첼터를 설립하는데 한 몫을 맡았고, 과학회 회원으로서 생명학 연구에도 관심을 두었다.

나성한인감리교회 설교자

최정익과 함께 공립협회 상항지방회에 가입한 후 남궁염은 신흥우의 권유로 1906년 12월 6일에 나성으로 이동하여 나성한인감리교회 한인기숙사에 들어갔다.



사우스힐 한인 예배당

나성한인감리교회는 1904년 3월 11일에 프로렌스 서면 여선교사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서면 여선교사는 1898년 2월에 미국 북감리교 의료선교사 해리 C. 서면 박사와 함께 내한하였으며, 남편 서면 박사는 광혜원에서 의료사역을 담당하다가 과로로 병을 얻어 1900년 도미하였는데 그해 7월 25일에 향년 31세의 나이로 나성에서 소천하였다.

서면 여선교사는 한인들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출석하던 나성 제일감리교회와 나성 인근 포도나제일감리교회의 '젊은 부인 해외선교부'의 후원을 도모하던 중 미국 남감리교 남가주연회는 서면 선교사를 한인 선교책임자로 임명하고 신흥우를 평신도 목사로 임명하였다.

1904년 3월에 '사우스힐스트리트 1519번지'에 기숙사와 예배처소를 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4>감사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주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5:00(토-일)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4>나성순복음교회</h4> <p>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영성)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8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4>남가주든든한교회</h4> <p>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714)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4>남가주사랑의교회</h4> <p>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영양 (장소: KDC,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p>	<h4>대흥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714)646-9259 www.dakp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디아스포라선교회</h4>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가능), Tel: (213)210-6890 2333 Figueroa St., L.A., CA 90057</p>
<h4>미주양곡교회</h4> <p>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4>미주평안교회</h4> <p>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4>빛과 소금의 교회</h4> <p>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p>	<h4>복음장로교회</h4> <p>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4>베델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3: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849)8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4>세계소망교회</h4> <p>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4>열매교회</h4> <p>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6</p>	<h4>엘피스가족원</h4> <p>원장: 박운송 목사 비서: 1. 박운송, 2. 김경희, 3. 김경희, 4. 박은희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4>은혜한인교회</h4> <p>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금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4>주님세운교회</h4> <p>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경대안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4>주님의영광교회</h4> <p>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mission.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좋은마음교회</h4> <p>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일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mission.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4>코너스톤 교회</h4> <p>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tc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4>토렌스조은교회</h4> <p>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동)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금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4>핼(PIM)선교회, 교회</h4> <p>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310)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4>하늘소망교회</h4> <p>담임목사 :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일기' 오전 9:30 오전 9:3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35)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 (1)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들어가며

이 책은 이미 ‘참 목자상’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목회자들에게 익숙한 책이지만, 필자는 이것을 다시 최고도의 개혁신앙에 맞추어 ‘개혁신앙 목회자(The Reformed Pastor)’로 번역해 보았다. 이 글을 위해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이 편집한 ‘The Banner of Truth Trust’사의 The Reformed Pastor의 서문과 패커(James I. Packer)가 쓴 서문, 조엘 비크(Joel Beeke)의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켈리 카피카와 랜들 글리슨의 ‘청교도의 고전으로의 초대(The Devoted Life- An Invitation to the Puritan Classics)’, 조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먼저 청중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대로 하고, 청중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대로 믿고, 청중에게 제시한 구주를 먼저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도록 먼저 주의하라!”

I. 책의 출판과 초점

이 책의 완전한 제목은 ‘길다스 살비아누스(Gildas Salvianus): 개혁신앙 목회자’로 1656년 처음 출판된 후 1657년 곧 재판이 나왔다. 이 책이 얼마나 큰 인기를 끌고 있었는지를 나타낸다. 스웨덴의 세인트갈교회 목사, 조한 졸리코퍼(1633-1692)는 “훗날 신실한 많은 목사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

양 목회자’는 수많은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맞추어 편집되고 재출간되면서 이 책의 부피가 작아졌다. 이로 인해 이 논문에 처음 나왔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이 백스터의 목회사역의 전라만을 소개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1776년 새뮤얼 파머(Samuel Palmer)는 원래 480면에 78면의 다양한 원자들까지 첨부되어있던 원본을 간단히 축약한 요약판을 출판했다. 이 책의 미국어판은 1810년 펜실베이니아주 워싱턴에서 출판되었다. 오늘날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번역판은 1829년 윌리엄 브라운(William Brown)이 요약하고 편집한 책으로 최근까지 계속 출판되었다.

서의 목사직을 수락했다. 세인트메리교회에 백스터를 그들의 설교자로 선택한 것은 평신도 중심의 경건훈련에 대한 획기적인 발견을 내딛은 중요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영국 시민전쟁(English Civil War, 1642-1651)에 참여하기 위해 백스터는 1642-1647년에 커터민스터를 떠나 군목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크롬웰(Olivia Cromwell, 1599-1658)의 신모범군(의회파의 New Model Army)을 섬기는 동안 친히 목격한 율법폐기론(Antinomianism)의 위험성에 대한 직접적 반응으로서 “힘을 다해 거룩함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또 백스터는 비록 분리파의 태도를 지지하지는 않았

성품 칼럼



이윤석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순종의 성품으로 완성되는 명품인생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부활절을 전후로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바흐의 ‘마태수난곡’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영적인 감동을 주는 특별한 곡입니다. 라이프치히 이 곡을 작곡한 바흐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바탕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수난, 죽음에 이르기까지 무려 세 시간 가까이 연주되는 위대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는 G 선상의 아리아, 무반주 첼로 모음곡과 같은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 작곡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바흐를 ‘음악의 아버지’라 부르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바흐는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온 가족이 음악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음악을 가까이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바흐에게는 음악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 다. 바흐는 아버지가 바이올린을 연습할 때 옆에서 혼자 음악을 익혀 나갔습니다. 또한 형들이 쳄발로를 연습할 때,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며 혼자 음악을 배웠습니다.

아홉 살이 되던 해,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할 수 없이 바흐는 정든 집을 떠나 가난한 학생들을 받아주는 기숙사 학교가 있는 도시로 갔습니다. 다행히 입학시험에 합격해 음악학교에 들어간 바흐는 가난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사랑하면서 음악공부에 매진한 덕분에 드디어 바이올리니스트, 오케스트라 지휘자, 오르가니스트가 되어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바흐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황제가 바흐를 초대한 것입니다. 왕은 바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짧은 선율을 줄 테니 이 선율을 듣고 푸가로 바꾸어 즉흥 연주를 해 보거라.”

바흐는 왕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기쁜 태도로 왕 앞에서 멋지게 즉흥 연주를 했습니다.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흐의 실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흐, 대단하구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선율을 갖고 더 멋진 곡으로 완성해 보아라.” “네, 왕이시여,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 왕을 위해 멋진 곡을 만들겠습니다.”

순종이란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시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는 것(좋은나무성품학교정의)입니다. 바흐는 새로운 곡을 만드는 일이 무척 어려웠지만, 왕의 명령에 좋은 태도로 기쁘게 따르며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왕의 지시에 순종하며 만들어진 곡이 바로 그 유명한 ‘음악의 헌정(A Musical Offering)’입니다. 사람들은 짧은 선율로 이토록 훌륭한 곡을 만든 바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성령은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가 가르칩니다. 가난 속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한탄만 하지 않고 자신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위대한 음악을 만든 바흐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나의 사명에 성실히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를 귀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게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한 것 같아 시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한 일들을 오늘 다시 성실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goodtreeusa@gmail.com

1650년대 분리파 교회들의 급성장 상황에 직접적 대책으로 세워져 칼빈주의 목회전통에 잘 어울려...성경 통해 목회상황에 맞춰 수정

복판 목사의 ‘참된 목자상’의 개요 등을 참조하였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목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350년 전에 출판되고 지금도 계속 출판되며 목회신학의 교재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다. 백스터는 책의 첫장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에게 지옥을 피하도록 극진한 관심과 열심을 갖고 백 년도 넘게 경도했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지금 지옥에 있다. 어떤 합리적인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진리를 제공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은 진리를 등한시하고 약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으로서 우리가 높이 평가하는 두 권의 저작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과 ‘개혁신앙 목회자’라고 썼다. 이는 백스터의 목회 개혁의 효력이 국제적으로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백스터의 개혁 전략은 1650년대 분리파 교회들이 급성장한 교회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세워진 것으로, 칼빈주의 목회 전통에 가장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특수한 목회 상황에 맞추어 수정되었다. 그래서 백스터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효과적인 설교를 하는 법과 함께 목회 훈련을 실천하고 전체 교구 교인들에게 교리문답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회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17세기에 이르러 ‘개혁신

앙 목회자’는 필립 도드리지(Philip Doddridge), 찰스와 존 웨슬리(Charles & John Wesley), 찰스 스펄전(Charles Spurgeon)을 비롯한 수많은 저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스펄전은 “아내가 주일 저녁마다 나의 나태한 마음을 각성시키기 위해 그 책을 읽어주었다”고 고백했다.

II. 백스터의 생애와 시대

1615년 로우톤(Rowton Salop)에서 목사로 태어난 백스터는 도닝턴의 자유학교(Donnington Free School)에서 교육을 받았다. 1641년 커터민스터(Kidderminster), 세인트메리교회의 영향력 있는 11명의 평신도들의 간절한 부탁으로, 백스터는 그곳에

지만, 자신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교구제도의 폐단을 역설하는 급진 분리파들의 비판에 대처하는 길을 모색했다.

1647-1661년에 백스터는 회심을 이끌어내는 설교와 전체 교구교인들에 대한 개인별 교리문답교육과 목회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근본적인 교회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백스터는 또한 경건의 일치를 위한 환경을 만들고, 종합적인 개혁목표를 추진시키기 위해 우스터연합회(Worcestershire Association)를 창설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청교도 운동을 낳은 실천과 경건의 주제들을 강조하는 청교도의 대표적인 목사, 복음전도자, 그리고 저술가가 되었다.

(10면으로 계속)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h3>		<h4>뉴욕갯세마네교회</h4> <p>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4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4>뉴욕목양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신국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기도회: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357-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4>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주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화,토)</p> <p>Tel. (718)265-2584, www.i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4>뉴욕새벽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p> <p>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생명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허운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h4>뉴욕새사람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이재성 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2-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4>뉴욕센트럴교회</h4> <p>담임목사: 김재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www.pcpc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4>뉴저지성도교회</h4> <p>담임목사: 허성희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4>리빙스톤교회</h4> <p>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공부: 오후 8:30</p> <p>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h4>베이스айд 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 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친구특별찬양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p>	<h4>사랑의동산교회</h4> <p>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4>어린양 개혁 교회</h4> <p>담임목사: 유승래 EM 목사: 임지윤 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p> <p>Jesus said "Feed My Lamb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4>빛과소금교회</h4> <p>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 3부 오후 4시50분 찬양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4>퀸즈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h3>		<h4>맨큐버빌라델비아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화-토) 공요기도회: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금요일 오전 7:30 공요찬양 기도회: 매월 둘째(목) 오후 7:30</p> <p>Tel. (804)584-5780, www.pc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4>브라질 한인교회</h4> <p>담임목사: 한봉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4>브라질 서울교회</h4> <p>담임목사: 하경남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6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p>	
<h4>아르헨티나 제일교회</h4> <p>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p>	<h4>칠레 한인연합교회</h4>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4>토론토 가든교회</h4> <p>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기도회: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4>하와이 행복교회</h4> <p>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4>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일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h4>멕시코 현지인 교회</h4> <p>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빈천 신학교 교수 2. 김어늘 신학교 교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3:00 주일 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목회서신

백신 맞으셨나요?



강인국 목사 (미시안아한인교회)

요즘에 사람들이 하는 인사 중의 하나가 "백신 맞으셨나요?" 라는 말이다. 그 인사와 함께, 무슨 종류의 백신인지, 몇 번째 주사를 맞았는지, 맞고 나서 후유증은 어떠한지 등 COVID 백신에 관한 소재로 한참 동안 담소를 나누게 된다. 사람들이 COVID 백신을 맞고 나니 조금씩 마음에 안정을 찾는 것 같고, 팬데믹의 길고 어두운 동굴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 같다. 하지만, 변종바이러스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말에 여전히 긴장

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같다. 백신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원균의 힘을 약화시켜서 그 균을 인위적으로 인체에 집어넣으면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그 약화된 병원균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강력한 면역체계가 강해진 몸의 면역체계가 강력한 병원균이 인체에 침입하더라도 이기게 만들어 준다. 영국의 의사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개발한 이후부터 인류는 홍역, 소아마비, 뇌염, 백일해,

장티푸스, 콜레라 등 수많은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백신의 힘은 실로 경이롭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제대로 한번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던가? 우리 집에도 내 위의 형과 누나가 어린 나이에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다. 백신은 수많은 종류의 병원균을 무력화 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었다. 실로 백신은 생명의 약품이다. 우리는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에게 큰 마

음의 빛을 지고 있다. 그런 백신을 개발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다. 안타깝게도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후에 약간의 고통을 겪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고통은 치명적인 죽음과 비교한다면 아무 것도 아니다. 내 몸이 약간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온갖 종류의 백신을 다 맞을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COVID나 무서운 질병이나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아도 죽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이 치명적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치명적인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게 해주는 백신은 없을까?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 한탄한다(롬5:12). 그러면서 바울은 사람들을 그 치명적인 죽음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한다(롬5:17-19). 죽음의 바이러스가 사람을 공격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치명적인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롬8: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구상에 쏟으시면서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구하는 생명의 백신을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에 주입하고 받아들이면 치명적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잠으로 담대하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고전15:55-57).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토록 담대하다. 우리의 몸에는 어릴 때 맞은 예방주사로 인하여 아직도 흉터가 남아있다. 하지만 그 흉터는 생명의 표시이다. 그 예방주사 덕분에 우리는 무서운 질병들을 이겨내었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깊고 흉한 흉터가 있다. 그 예수님의 흉터는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표시이다.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COVID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신을 맞지만 결국 거대한 산과 같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에 그 참혹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된다. dik0184@yahoo.com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유방암

현대 의학의 오랜 숙제는 암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암은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면 치료에 어렵고, 발달한 현대 의학도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완치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암의 조기 발견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어떤 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검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특정 암에 대한 조기 발견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사망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일중독자로 부를 만큼 일에 파묻혀 사는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정기 건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해왔다. 석 달 전에 유방암 정기검사 mammogram을 했기 때문에 유방에서 덩어리가 만져져도 처음에는 일하던 중 어딘가에 부딪쳐 다쳤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크기가 커져서 의사를 찾아왔다. 크기는 지름 약 2센티미터 정도고 통증은 전혀 없었다. 주위 조직에서는 덩어리가 만져지지 않았다. J씨는 정밀 진단을 거쳐서 수술을 받았고 그 결과 유방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유방암은 미국에서 1년에 20만 명 이상이 새로 진단을 받고, 4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흔한 질환이다. 여성에서 폐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다. 다행히 지난 20년간 유방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망은 약 20% 정도 줄었

는데 이는 초기에 유방암을 진단하는 방법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방암을 검진하는 진단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유방암을 진단하기 위한 유방전용 방사선을 촬영하는 유방촬영술(mammography), 의사에 의한 유방암 촉진(clinical breast exam), 그리고 손으로 만져서 덩어리를 발견하는 유방촉진 자가진단(self-exam) 등이다. 세 가지 검진으로 약 50%의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데 그중 약 5-10%는 방사선검사로 발견되지 않고 유방촉진에 의해

문에 작은 덩어리가 한두 달 안에 크게 자랄 수 있다. 셋째, 유방암 방사선검사는 50-70세 연령대에서는 유방암 조기 발견 효과가 인정되고 있지만 50세 이하나 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유방의 지방조직이 줄게 되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40대 이전에는 엑스선 촬영 시 노출되는 소량의 방사선을 우려해 유방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다. 자가진단도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

는데 도움이 된다. 초음파상에서 물혹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인지 구별해야 한다. 방사선 유방촬영검사에서는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촉진할 때 종양이 만져지지 않을 때는 종양의 위치를 판단한 후에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steretotactic biopsy).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방암 조기 검사는 촉진과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 함께 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가검진은 매달 월경이 끝난 직후에 하고, 방사선 유방촬영 검사

는 40대 초반부터 1-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것이 좋다.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BRCA-1, BRCA-2)를 가진 여성은 일반여성보다 더 일찍부터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를 받도록 하고(18세부터) 심지어는 예방목적으로 유방절제술을 시행하기도 한다. 가까운 가족 중 여러 명이 폐경 전에 유방암에 걸렸다면 자신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50% 이상으로 봐야 하고, BRCA와 같은 유방암 유전자와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한다. 또 여성호르몬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는 경우에도 유방암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한다.

엑스선, 촉진, 자가진단으로 조기발견 가능

서만 진단된다. 유방 엑스선 검사는 유방암 조기발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유방암 사망률을 낮춰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그러나 몇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유방 엑스선 검사에서 비정상상과 결과가 나오더라도 암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불필요한 검사나 수술을 요할 수도 있다. 둘째, 유방 방사선검사에서 정상으로 판명되더라도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방 엑스선검사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특히 환자가 젊은 경우 암이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

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실시하도록 한다. 자가진단은 매달 규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는데 시기는 월경이 끝난 후 일주일째가 가장 좋다. 폐경기 여성은 임의의 날짜를 선택해 매달 같은 날 검사하면 된다. 최근에 발달된 유방암 조기 검진방법으로 MRI 촬영이 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1-2년에 한번 검사해야 하는 정기검진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현재의 MRI 검사는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보다 유방암을 초기에 발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양성(암이 아닌 경우를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이 단순 엑스선 촬영보다

우에 도움이 된다. 초음파상에서 물혹이 아닌 모든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해서 양성종양인지 구별해야 한다. 방사선 유방촬영검사에서는 이상으로 나타나지만 촉진할 때 종양이 만져지지 않을 때는 종양의 위치를 판단한 후에 조직을 떼어내는 방법을 사용한다(steretotactic biopsy). 양성종양으로 진단되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유방암 조기 검사는 촉진과 방사선 유방 촬영 검사 함께 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가능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자가검진은 매달 월경이 끝난 직후에 하고, 방사선 유방촬영 검사

유방암 자가진단 촉진법 ①거울 앞에 서서 유방을 보며 전체적인 윤곽, 좌우 대칭, 유두와 피부의 상태 등을 관찰한다. ②양손을 위로 올려 유방을 완전히 노출시킨 후 피부가 함몰된 곳이 없는지 살핀다. ③왼손을 어깨 위로 올린 후 오른손 세 손가락으로 유방의 바깥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촉진한다. 유방을 약간 눌러서 비비는 느낌으로 촉진한다. ④유두를 꼭 짜서 분비물이 나오는지 검사한다. ⑤겨드랑이에 멍울이 있는지 만져본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문의:213-383-9388



케서린 조 'No Perfect World' 싱글앨범 출시

2021년 고난주간에 발표된 케서린 조(Catheryn Jo)의 싱글앨범 No Perfect World(완전하지 않은 세상)가 출시됐다. 케서린 조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은 깨어지고 상처받고 고통 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건다. Here's to the ones whose breath is running out, Here's to the ones who rush in to help... 숨을 쉬기 힘든 그대에게, 도움이 절실한 그대에게 이 노래가 있다"고 말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은 캐나다 The Bridge CRC 교회를 담임하는 Bruce Gritter 목사가

가사를 쓰고, 미국 LA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Catheryn Jo와 Joseph Kim이 함께 곡을 썼다. Bruce 목사는 COVID-19으로 유례없는 고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러져가고 절망하는 지난 1년 동안 이 세상의 깨어짐을 애통해 하며 이 가사를 썼다. 고통 받고 절망스러운 이 현실이지만, 후렴구에서는 In a Perfect World, 완전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위로와 회복이 있을지 반복해 말한다.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다시 이런 재앙을 겪지 않을 것이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과 슬픔이 없을 것이다. 반복되는 이 가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가리키고 있다. 이 곡은 Epic Pianist라는 아티스트 명으로 활동하는 영화음악가이자 프로듀서, Joseph Kim이 작곡과 함께 편곡 및 프로듀싱 했다. 특별히 오케스트라 편곡의 강점을 가진 만큼, 그의 편곡은 Bruce 목사의 신학적이면서도 시적인 가사와 Catheryn Jo의 진정성 있는 표현력과 맑은 음색과 더불어, 이 노래의 감동과 깊이를 더하게 했다. Epic Pianist Joseph Kim은 Orchestre national d'île-de-France에서 연주 계획을 가질 만큼 인정받은 실력가다. 이 노래는 YouTube를 비롯한 Spotify, Amazon music, Deezer, iTunes 등 스트리밍 앱에서 들을 수 있고, 특별히 YouTube에서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자막으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75sD7RI50w (정리: 박준호 기자)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의료보험이나 신분 등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사 - Ralph Ahn 도산 언창호 3남
Congratulatory Remarks - Ralph Ahn, Dosan Ahn Chang-ho's 3rd son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동포연합기념식에서 랄프안 선생이 축사하고 있다.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동포연합기념식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2주년 동포연합기념식이 ‘한인사회의 화합과 단결’이라는 주제로 나성한인연합장로교회(담임 박일영 목사)에서 4월 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민회기념재단 주최로 열렸다.

민병용 학술위원장 사회로 열린 기념식은 테너 오위영 목사가 애국가와 미국국가를 불렀으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었다.

이어 성경원 흥사단 미주위원부 위원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보고, 윤효신 대한민국민회 기념재단 이사장이 환영사, 박경재 LA총영사가 대통령 기념사를 대독, 제임스안 LA한

인회장, 홍명기 미주도산안창호 기념사업회 총회장, 에드워드 구 미주평통LA회장, 랄프안 선생(도산안창호 선생 3남)이 축사했으며 김초영 학생(라카나다 고교 9학년)이 차세대축사를 했다.

이어 민병용 학술위원장이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정임 고전무용단이 전통무용공연, 박영남 목사(광복회 미서남지부회 회장)과 그레이스송 미주 3.1여성동지회 회장이 만세삼창했다.

이날 기념식은 박일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OC장로협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신임 황치훈 회장, 김생수 이사장

OC장로협 제7대 회장 및 이사장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황치훈 장로) 제7대 회장 및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11일 오후 4시 홀리턴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 황치훈 장로는 취임사에서 “장로협회장을 맡으며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며 “임원회 신년기도회를 줌으로 모이며 함께 힘을 감사한다. 팬데믹이 지나간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다. 장로협의회가 불우이웃돕기 등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 기도하며 고민했다”고 말했다.

황 장로는 “도움이 필요한 자 찾아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역이다. 우리는 삶의 연장전을 지나는 것 같다. 모두가 주의 섭리위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장로의 모습되길 소원한다. 장로의 롤모델 되는 장로협 되길 소원한다. 넉넉히 이 일 감당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신임 이사장 김생수 장로는 “장로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성령

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 다해 섬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장로(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이취임식은 강신욱 장로(전임회장)와 전홍 장로(전임 이사장)가 이임인사를 했으며 황치훈 장로와 김생수 장로가 취임인사를 했다.

이어 권석대 장로(OC한인회장), 이호우 목사(OC교협 이사장), 이영선 목사(복음방송 사장)가 축사했으며 한기채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권면과 취임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남성수 목사(OC한인교회)가 축도했다.

배기호 장로(수석부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백정우 목사(남가주동신교회)가 기도했으며 민감 회장(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 성경봉독했으며 황인철 목사(홀리턴장로교회)가 ‘우리가 가야할 길(막 8:3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장로협은 미주복음방송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웃돕기 프로젝트 나눔은 사역을 위해 5천 달러를 전달했다.

(박준호 기자)



캘리메시아코랄&챔버오케스트라 메시아 공연을 마치고 단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캘리메시아코랄&챔버오케스트라 메시아 공연

비영리 한인 연주단체인 캘리메시아코랄&챔버오케스트라(단장 이사호, 지휘 박성근)는 부활절인 4월 11일 오후 4시 부에나파에 위치한 소스몰 야외공연장에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공연을 가졌다.

이사호 단장은 “이번 공연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열리게 됐다”며 “코로나 19로 전체연습을 한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공연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했다.

강복동 목사(생수의강선교회 협동) 기도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파트I 예언·탄생, 파트II 수난·속죄, 파트III 부활·영생 등 주제로 펼쳐졌다.

캘리메시아코랄 단원들은 지휘 박성근, 피아노 강주영, 소프라노 강보경, 김지은, 이영주, 오텔렌, 엘토 정희숙, 테너 김명현, 오위영, 이남일, 김좌진, 베이스 이사호, 바리톤 장상근 등 한인커뮤니티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박준호 기자)

한인가정상담소, 가정폭력예방전문가 23명 탄생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한인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모을 종교지도자 23명이 새롭게 탄생했다.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캐서린 엄)는 지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한인가정폭력예방교육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실시간 화상수업을 통해 진행했다. 이 교육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인가정폭력예방교육을 대상으로 개설됐다.

40시간의 교육과정에서는 △가정폭력 개요와 역사 △아동학대와 영향 △청소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 대책 및 평가 △이민법 및 기소법 등 법률적 지원 △피해자 상담과 리소스 등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졌다.

엄 소장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제일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종교기관”이라며 “그만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한인 종교지도자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인가정상담소는 캘리포니아주로부터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공식 인증기관이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강생 중 한 명인 이미영 사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인가정 내 가정폭력피해의 심각함을 알게 됐고 사역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수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돼서 매우 유익했다”고 밝혔다.

▲문의: (213)235-4888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미성대학교 영성부흥회에서 한기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다시 복음으로’ 한기채, 지형은 목사

미성대 영성부흥회, 5-6일 온라인으로

미성대학교(총장 이상훈 박사) 영성부흥회가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로 지난 5일과 6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5일 오후 6시 30분(미서부시간) 집회에서 이상훈 박사는 “이 시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말씀과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믿음 능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무례한 기독교(눅9:51-56)’라는 제목으로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담임/기성 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한기채 목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지 말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을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 개신교가 대동할 때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신구교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생했고 개신교도 세속권력으로 종교전쟁 일으켜 잔인한 역사를 가졌다. 배타적이고 타자를 마귀화 하는 일을 하며 불신자들에게 기독교가 무례하고 호전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앙의 싸움은 중요하다

지만 너무 흑백논리 이분법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스스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며 “영혼사랑 진리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했더라도 안한 것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성령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목사는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도 좋아야 한다. 한국기독교가 우리의 미래인 불신자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그들에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해야 한다. 무례했던 것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둘째 날 집회는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담임/기성 부총회장)가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3월 29일에는 케빈리 목사(새들백교회 온라인 담임)가 ‘온라인 사역원리와 방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부활의 은혜 누리며 삽시다’

샌디에고 교역자협 부활절연합예배 온라인으로

샌디에고 한인교역자협의회는 지난 4일 새벽 샌디에이고 한빛교회(담임 이병희 목사)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가졌다.

이날 연합예배는 팬데믹으로 인해 일부 교역자협의회 소속 목사들과 예배 인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일반 신

자들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설교는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양사무엘 목사(SD 인터넷서널 교회)가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눴다.

(정리: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그레이스미션대 정보기술 공개 오픈 세미나

그레이스미션대학교(총장 최규남 박사)는 인가기관인 ATSG가 Lilly Endowment 그랜트 일환으로 준비한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신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중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공개 오픈 세미나를 갖는다. GMU 도서관 로비에서 열리는 오픈 세미나 시리즈 2: 공개 성경소프트웨어 사용법 및 설치 이벤트를 26일(월)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제임스 구 교수(행정처장)이며 참석자들에게 64G USB를 제공한다. 이 USB에는 새창송가 한글 PPT와 한영 PPT와 히브리어, 헬라어 폰트설치를 포함한 19가지의 성경번역본과 원전본해 및 주석, 사전 등의 다양한 사용법을 설명한 Social Media & Church Communication: A Practical Guide for Church Leaders(한글 Edition) 책자가 제공된다. 신청순 30명, 현장접수가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도 진행된다. 참가비는 모든 강의와 교재, USB 포함 25달러.

▲문의: (714)525-0088(Ext 101)

찬양사역자 청빙

나성서남교회(담임 최관능 목사 16100 Crenshaw Blvd., Gardena)에서 찬양 사역을 담당할 신실한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전문 찬양사역자 또는 찬양에 은사가 있는 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다. △담당사역은 주일예배 및 금요찬양 및 토요새벽 예배 찬양인도, 미디어 사역을 함께 할 경우 하프타임 사역도 가능하며 사역시간(Part, Half)은 면접 시 논의한다. △제출 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찬양인도 동영상 혹은 링크 2개,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이며 서류 접수는 E-mail(kcsw7193@gmail.com)로 받는다.

▲문의: kcsw7193@gmail.com

파트타임 Youth Pastor 모집

남가주커뮤니티교회(담임 박종진 목사, 430 N State College Blvd, Brea)는 파트타임 Youth Pastor를 모집한다. 자격은 현재 정규신학교 재학 중이나 졸업(M.Div)한 자이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사용 가능한 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자기소개서, 개인 신앙간증서, 추천서 1부다. 제출서류는 이메일(gpbaraka@gmail.com)로만 제출해야 한다.

▲문의: gpbaraka@gmail.com

UMC한인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 제2회 학당

연합감리교 한인여성선교회전국연합회(총무 김명래 전도사)는 지난 2월 제 1회 학당을 개최한데 이어 오는 24일(토)엔 제2차 학당을 ‘빈민선교, 슬럼가에서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열리는 학당의 강사 이태후 목사는 필라델피아 슬럼가에서 목회하며, 삶으로 이웃을 섬기는 매우 독특한 사역을 하는 목회자다. 여성교회의 제2회 학당시간은 4월 24일(토) 동부시간 오후 7-9시, 중부시간 오후 6-8시 그리고 서부시간 오후 4-6시다. 등록비(\$20)는 Zelle(Bank account: nnkumw93@gmail.com) 또는 체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문의: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nnkumw93@gmail.com

가나안교회 임직감사예배

가나안교회(담임 임동운 목사)는 4월 18일(주일) 오후 3시 임직감사예배를 드린다. 이날 임직식을 통해 장로장립 심세형, 권사취임 김은숙, 권사임직 심희영, 한명복, 안수집사 취임 이영근, 이승렬 집사가 임직 받게 된다. 가나안교회 주소는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562)866-0980



LA 올림픽가에 혐오범죄 중단 평화시위가 열렸다(사진은 CBS 방송 캡처)

인종혐오범죄 중단 평화시위

LA올림픽가에서, 지역단체 정치인 참여

아시안 혐오범죄 중단을 위한 평화시위가 LA 코리아타운 올림픽가에서 지난달 27일 2천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애들란타 연쇄 총격사건으로 숨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안 여성 6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시안의 증오를 멈추라(Stop Asian Hate)”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시위에는 제임스 한 LA한인회장과 아태코커스 의장인 주디추 연방하원의원, LA10지구 시의원 마크 리들리, LA12지구 시의원, 강석희 전 어마인 시장 등이 참가했다.

그 외에 아시안정의진흥연대, 리틀도코서비스센터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 대표 단체들과 라틴계 인권 단체인 호미스

우니도스(Homies Unidos), 론 헤라라 연방노동연맹-산별노동조합의회(AFL-CIO) LA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 아태정책기획위원회(A3PCON), 퍼스트 AME교회 에드거 보이드 목사 및 교인 등 흑인과 라틴계 및 주류사회 단체 리더들도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올림픽 가를 따라 행진하다 한국노인회관 앞 놀만디 교차점에 집결해 구호 등을 외쳤다.

이날 제임스한 LA한인회장은 “아시아계와 힘을 합쳐 인종 혐오범죄를 몰아내자”고 말하고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인터콥·전광훈 이단성 논의

8개교단이대위,교단별 총회대비 이단규정·연구내용 공유 협의

이단·사이비 문제를 담당하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현안을 논의했다.

한국교회 8개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모인 8개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8개교단 이대위·회장 황건구 목사)는 8일 천안 빛과소금의교회(유영권 목사)에서 정기회의를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황건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영권(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배만석(예장합동) 심상호(예장통합) 조완철(예장고신) 이의성(기독교한국침례회) 목사 등이 참석했다. 오는 9월 등으로 예정된 교단별 정기 총회를 앞두고 현재 논의·연구되고 있는 이단 규정 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에 요구되는 부분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주요 쟁점은 BTJ열방센터로 알려진 인터콥선교회와 전광훈 사람제일교회 목사, 동성애 옹호 목회자 문제 등이었다. 인터콥의 경우 예장합신과 예장고신

을 위주로 이단 규정 여부를 놓고 검토 중이다.

유 목사는 “예장합신은 이미 2013년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했다”면서 “최바울 대표는 베뢰아신학과 신사도운동, 극단적 종말론과 세대주의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지 등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단 규정에 앞서 인터콥이 영적의 피해가 갈 우려가 있는 만큼 관련 교회들이 정비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주되, 다른 교단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유 목사는 또 일부 목회자들이 모인 단체에서 인터콥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에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했다.

정치적 행보뿐 아니라 일부 반성경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전 목사에 대해서는 전 목사가 속한 예장대신개혁 측에서 이단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예장통합 측에선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유 목사는 예장합신 입장과 관련, “이번 총회 때 이단대책위가 아닌 신학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도는 배제하고 전 목사의 신학적 문제점을 조명해 신도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8개교단이대위는 인터넷 언론 뉴스앤조이에 대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비성경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장고신과 예장합신의 연구·조사 상황을 공유하고 해당 매체의 문제점에 공감을 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동성애 옹호 사역자 문제 등 각 교단이 연합해 대처가 필요한 사역을 공유하며 필요한 대책을 협의했다.

황 목사는 “팬데믹 속에서도 주요 교단 이대위원장이 모여 교파를 초월해 함께 이단 대처에 협력하는 모습이 감사할 따름”이라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탈북민교회 목회자들 사명감으로 버티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한국교회가 손 잡아줘야

탈북민교회를 북한선교의 열매이자 통일 준비의 길잡이로 세우려면 한국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동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기독교총연합회와 총신대 평화통일개발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2021 탈북민교회 통일준비포럼’이 10일 서울 동작구 총신대 종합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형신 뉴코리아교회 목사는 ‘탈북민교회 기본 현황과 코로나19가 목회현장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1999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국에 68개 탈북민교회가 설립됐고, 현재

58개 탈북민교회가 있다. 정 목사는 지난해 코로나19가 탈북민교회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 58개 교회 중 34.5%에 해당하는 20개 교회를 대상으로 재정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해 2월 기준 월평균 수입이 ‘200만원 이하’인 교회는 14개로 조사 대상의 70%를 차지했다. 20개 교회 월평균 임대료는 93만원에 불과했다.

정기후원을 포함한 교회의 월별 재정 현황은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월 수입액 ‘100만원 이하’(4개)와 ‘201만~300만원’(3개), ‘501만원 이상’(2개) 교회는 기존 재정 상태를 유지

했다. 반면 월 수입액 ‘101만~200만원’인 교회 10곳 중 2곳은 재정이 감소했다. 2개 교회만 월 수입액이 증가했다.

정 목사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지만, 탈북민교회 전체 재정의 약 30%는 외부 후원인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있었음에도 전반적으로 재정 상황에 큰 변화가 없었던 건 한국교회의 지속적 관심과 섬김, 각 교단의 미자립교회 지원 정책이 유지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목사는 “탈북민교회 목회자 중 70% 이상은 100만원 이하의 사례비를 받고 있다”며 “탈북민교회와 사명감으로 목회현장을 지키는 목회자들의 손을 잡아주는 동역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런받았고 올해 봄 학기엔 80여 명이 참석 중”이라고 전했다.

김정숙 훈련선교사는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다. 김 선교사는 “4월 1일 현재 447명이 구독 중인데 구독자 수보다 의미있는 건 유튜브로 연결된 친구 2명”이라고 말했다. 우간다와 인도네시아의 두 청년으로 김 선교사의 성탄특집 말씀을 유튜브로 본 뒤 댓글로 연락했고 현재 사역자 훈련을 받고 있다.

언제든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올 수 있는 만큼 IT 기술을 활용해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지포지 저스(SFJ)의 김재서 IT선교사는 “카카오톡 채널에 교회채널을 만들어 교회소개와 불신자들이 읽을 만한 글을 올리면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생명 FMnC선교회 이사는 선교사역에 디지털을 융합하는 ‘스마트 사역’을 소개하면서 페이스북 등 SNS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적극 파송하고 제안했다.

포럼에서는 ‘100만 자비량 선교운동의 신학적 고찰과 교단·교회별 실행 전략’(나성균) ‘비즈니스 선교 모델’(차형규) ‘한국 선교의 미래와 100만 자비량 선교운동’(전철영) ‘100만 자비량 선교운동과 현장 선교사의 역할’(김종국) ‘100만 자비량 선교운동과 청년 운동의 미래’(조지훈) ‘평신도’를 이주민 선교사로(노규석) 등의 주제들이 발표됐다. 서중포럼은 변혁한국(상임의장 황성주 박사) 주관으로 매달 열리고 있다. 세계선교와 영적 혁신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고 있다.

기성,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

신임목사 121명 안수...복음 위한 사명 다져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기재 목사) 제114년차 성결인대회 및 목사안수식이 8일 부천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려, 신임목사 121명이 탄생했다. 이날 목사안수식은 코로나19 방역과 안전에 힘쓰며 더욱 경건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대강당 입구에서 방문자 발열 및 큐알체크를 실시했으며 목사안수식이 진행된 3층 대회의장은 목사안수 대상자와 안수위원, 예배 순서자, 진행스텝만 출입이 가능했다.

목사안수 대상자 가족 등 축하객도 각 1명씩만 허용했다. 축하객들은 1층 회의실에 마련된 스크린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목사안수식을 지켜보았다. 121명 목사안수도 방역을 위해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됐다. 오전에는 59명이, 오후에는 62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목사안수 대상자들은 2-3미터씩 충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안수식에 참여했다.

목사안수식은 한기재 총회장의 집례로 진행되었으며, 목사안수 대상자 성찬식도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분병분잔을 하는 대신 개인별 성찬키트의 빵과 포도주를 사용했다. 목사안수 대상자들은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과 더불어 자신을 거룩한 산 희생의 제물로 드릴 것을 다짐했다.

고시위원장 박명철 목사의 기도 후 안수대상자 호명에 자리에서 일어난 안수 대상자들은 서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명예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 엄숙히 서약했다.

하이라이프인 안수례는 강단에 목사안수 대상자 6명씩 한 조를 이뤄 진행되었으며 이스라엘이 선지자를 세울 때 행해진 기름부음 예식이 처음 실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목사안수 대상자의 아버지, 형제, 담임목사 등에 해당하는 특별안수위원도 참여해 감동을 더했다. 안수례 후 한기재 총회장이 남부 목사안수

대표자들에게 안수증 및 메달을 수여하고 교단의 목사가 되었음을 공포했다.

3부 축하순서는 설봉식 교단총무의 사회로 오전에는 전 총회장 박현모 목사가, 오후에는 전 총회장 신상범 목사가 권면의 말을 전했다. 서울신대 총장 황덕형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목사안수식을 마치면서 신임목사 전원이 강단에 올라 목사안수를 받은 후 첫 축도를 했다. 한기재 총회장은 강단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새 목사들의 축도를 받았다.

1부 성결인대회는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의 인도로 부총회장 고영만 장로의 기도, 서기 이승갑 목사의 성경봉독, 기성목사합창단의 특별찬양, 총회장 한기재 목사의 설교 등으로 진행됐다. ‘시대를 알고 행하는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재 총회장은 신임목사들이 시대를 읽는 정보력, 행할 것을 아는 실행력, 통솔할 줄 아는 지도력을 갖춘 교단 목회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참석자들이 성결성 회복, 코로나19의 종식, 한반도 평화, 지구촌 분쟁 해결 등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진심으로 사과...”

IM선교회 마이클 조 대표 “한국교회의 철저한 지도 받겠다”

지난 1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일으킨 IM선교회의 마이클 조(본명 조재영·45) 대표가 사건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국민일보 인터뷰에 응했다.

6일 대전 중구 선교회 본부에서 만난 조 대표는 “저와 선교회에 향한 질책과 비난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다수의 확진자 발생으로 피해를 본 한국교회와 기독교 대안학교, 한국사회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며 고개를 숙였다.

조 대표는 “지난 1월 캠프를 진행했는데 40여명의 신임생 중 무증상 감염자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다수의 감염자가 나온 것은 예배 감격에 못 이겨 아이들이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기출과 자살 시도자, 미디어 중독, 왕따, 동성애 청소년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그만 방역수칙을 소홀히 하고 말았다”면서 “사건이 터지고 그때 왜 그렇게 부실하게 대응했을까 수백

번도 자책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첫 번째 감염자가 발생하고 대전지역에 ‘n차 감염’을 막기 위해 건물 밖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면서 “선별진료소로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도 나 혼자 직접 승합차를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 지역의 학교는 프로그램만 전수해줬을 뿐 교사나 학생 간 교류가 일절 없었다”면서 “그런데도 전국에서 IM선교회발 감염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면서 황당하면서도 죄송했다. 우리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 없었다”고 전했다.

충남 서산 출신인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다. 배재대 관광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3년 대전에서 학원 강사로 명성을 떨치다 영어학원을 운영했다. 2006년 기도 중 ‘다음세대 사역에 힘쓰라’는 소명을 받고 청소년 사역에 뛰어들었으며, 2013년 필리핀 선교사로 헌신했다. 2018년 귀국 후 현재의 건물을 빌려 청소년

신앙유물 ‘눅종’ 한국기독교 사적 지정

예장통합 제39호...전남 신안군 비금덕산교회 눅종

멀고 먼 섬마을 교회의 눅종으로 만든 종이 한국기독교 사적으로 지정됐다. 100여년 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도서선교 열정과 섬마을 주민들의 신실한 신앙이 합쳐져 만들어낸 성과물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는 5일 전남 신안군 비금면 비금덕산교회(황규석 목사)를 찾아 ‘한국기독교 사적 제39호 지정예식’을 진행했다.

비금덕산교회는 ‘미 남장로교 도서선교 기념교회’이다. 1908년 목포선교부 소속이던 헨리 D 매컬리(맹현리) 선교사가 배를 타고 섬에 들러 예배를 드린 것에서 기원한다.

호남지역을 선교구역으로 했던 미남장로교는 육지뿐만 아니라 섬마을을 선교를 중시해 한국인 조사와 함께 도서지역 교회를 개척해 나갔다.

비금덕산교회에서 분가한 교회만도 비금서부교회 비금제일교회 비금도고교회 당산교회 서산교회 영광교회 비금동부교회 송치교회 신안교회 신안제일교회 비금중앙교회 갈보리교회 가산교회 비금실로암기도원 등 14개 처소에 이른다.

비금덕산교회 앞마당 높다란 종탑 안의 눅종은 섬마을 성도들의 신실함이 담긴 유물이다.

예장통합 역사위원회는 “눅종의 정확한 제작 연도는 알 수 없으나 4대 교역자였던 김봉현 목사 때 종을 구입한 것으로 보아 대략 1920-30년대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교회 기록은 김봉현 교사의 동생 김봉신이 목포의 한 교회 종소리에 은혜를 받아 3년간 점심을 금식하며 모은 양식으로 평양에서 종을 구매했다고 전한다.

눅종의 외부엔 십자가 표시와 함께 ‘관서로종’이란 한글이 새겨져 있다. 관서로는 평안도 일대를 지정하는 말로 역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평양 인근에서 제작된 종으로 유추했다. 특히

치유사역을 시작했다.

조 대표는 “다음세대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청소년 캠프를 시작했고 아이들과 함께 뒀글면서 아이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문제이들을 모아놓으니 매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정말 병원 응급실 같은 사역을 펼쳤다”면서 “그렇게 아이들과 부딪히다 보니 그들을 변화시키는 주제는 어른이 아니라 성령충만한 또래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캠프 입소 전 또래가 또래를 변화시키고자 금식기도를 했다”면서 “수천명의 영혼이 변화되는 그 맛을 체험하니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 사역을 중단한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다시 한번 폐를 끼쳐 죄송하다. 일일이 찾아뵙고 사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작은교회의 청소년 사역을 돕고 위기 청소년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것이 속죄의 길이라 생각하고 한국교회의 철저한 지도를 받겠다”고 약속했다.

철이 아닌 눅종으로 주조된 종이어서 남한에선 발견되지 않은 형태이며 종소리가 부드러운 특징을 지닌다.

역사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교회 종들이 공출 당했을 때 드물게 교인들의 노력으로 빼앗기지 않은 종들이 있는데, 비금덕산교회 눅종 또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비금덕산교회는 “일제 때 흔적으로 보이는 다수의 흠집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예배 때 타종할 정도로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다.

신정호 총회장은 지정예식 설교를 통해 “통일이 되면 이 눅종을 평양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타종식을 하는 날을 기다린다”면서 “일제 강점기와 6·25 등 근현대사 여러 위기 속에서도 이 큰 눅종을 잘 보관해온 교회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와이즈뮤직, 호산나음악사 인수

한국내 최대 교회음악기업으로 탄생

교회음악 전문기업 와이즈뮤직(대표 강하늘)은 지난 1일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음악 전문 출판사 호산나음악사를 인수합병했다가 8일 밝혔다. 이로써 출판물 종류만 400여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교회음악 전문 기업이 탄생했다.

호산나음악사는 1971년 설립돼 50여년간 300여종의 교회음악 전문도서를 출간했다. 규모에 걸맞은 전문경영인을 찾아

침체된 환경을 극복하고 도약을 모색하던 중 와이즈뮤직과 인수합병을 결정했다.

강하늘 대표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출판물을 보유한 대형 교회음악 전문기업이 탄생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인 감소와 노령화,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최대의 악재를 만나 침체됐던 한국 교회음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교의 창 (167)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거룩한 삼각구도(The Holy Triangle)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의 대학을 정복하라”라는 말이 있다. 대학에는 장차 국가와 민족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이 집단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석학인 말릭(C.H. Malik)은 언급하기를 “대학은 서구문명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산물 중의 하나”라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오늘의 대학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선교”라는 통상적 구호들은 결코 우연히 나온 말이 아니다.

성립배경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는 학문적 측면이다. 중세시대에는 오래 전부터 수도원과 대성당 소속의 본산학교에서 비교적 수준이 높은 학문적 연구의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또한 의학적 측면이다. 당시 사회가 페스트와 같은 유행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더욱이 십자군전쟁으로 부상자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의술과 의학적 지식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나아가 경제적 측면이다.

중세 최초의 대학은 11세기에 설립된 이탈리아의 볼로냐(Bologna)대학이다. 이 대학은 최초의 서구 대학이자 남부 유럽 대학의 모델이 되며 법학의 중심지였다. 이 외에도 일반 교양과목과 의학, 철학, 신학 등을 가르쳤다고 한다. 탄생 연대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볼로냐(Bologna):1180년, 파리(Paris):1200년경, 옥스포드(Oxford):1200년경, 살레모(Salerno):1200년경, 몽트펠리엘(Montpellier):1180년경, 비엔나(Viena):1365년, 에르푸르트(Erfurt):1379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1385년 등이었다.

15세기 말에 유럽에 80여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이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대학은 볼로냐

현재 한국에는 약 400개 대학 300만 명의 대학 인구가 있다. 해마다 대한민국 육, 해, 공군 전체 60만 명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또 졸업하여 나간다. 그들은 마치 바다의 밀물과 썰물처럼 쉴 새 없이 2 내지 4년 텀으로 뒤바뀐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학은 어떠한가? 미국 대학은 크게 공립(주립)과 사립으로 나뉘며 그 안에서 4년제와 2년제로 구분된다. S&T Analysis Reports에 의하면 2009-2010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모든 대학 수는 4,495개이다. 이중 공립대가 1,672개(전체의 37.2%), 사립대가 2,823개(전체의 62.8%)로 사립대의 수가 더 많다.

아 되겠는가?

4. 유학생 선교를 바라보는 시각

첫째는 감상적 선교시각이다. 선교란 어려운 오지로 가 구제와 사회 봉사적인 활동이 깃들어야 된다는 의식이다. 이에 하다못해 멕시코 국경이라도 넘어갔다 와야 선교했다는 느낌과 감동이 있다.

둘째는 교회부흥과 관련이 있다. 교회는 성장을 지향한다. 현대 유학생 사역은 밀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생각이 든다. 그들은 도움을 받고 정들만 하면 학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므로 “모이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유학생 사역은 재미가 없다.

셋째 전문성과 관계된다. 대개 교회는 대중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대학사역은 단일 계층이다. 전문성을 요구한다. 나이, 언어, 거리, 시간, 문화, 의식구조 등 다양한 방면에 거리감이 있다.

넷째로 이기심이다. 대부분 교회가 선교에 참여할 때 관계 지향적이다. 아무리 사역적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직

접적으로 유익이 되거나 관계성이 없으면 동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전략적인 접근

동물의 왕국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수많은 짐승을 다 상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사자나 호랑이만을 집중적으로 양육하면 된다. 그들이 우리 대신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이다. 전 세계를

순회하기란 쉽지 않다. 대신 대학에 와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선교하는 것은 세계선교의 접점이 된다.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 CCC, ESF, IVF, ISI, AFC, UBF, YM, Navigators 등등의 초교파적 선교기관과 그리고 캠퍼스 선교를 지향하는 소수의 대형교회들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턱없이 힘이 모자란다. 일반적으로 학생 선교단체는 비전과 열정은 있으나 힘이 약하다. 이에 비해 지역교회들은 도처에 있고 많은 인력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선교는 소명과 준비가 된 사람과 단체 그리고 지역교회가 함께 힘을 모을 때 그 파괴력은 배가 될 수 있다.

맺는 말

모든 영혼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하다. 그러나 전술적으로 볼 때 일반 병사와 공수부대 요원과 사관장에게 거리가 있다. 그러므로 대학선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2천년전 로마 셋집에서 복음으로 외로이 승부했던 바울이 오늘 살아 있다면 그는 과연 어디에 사역적 방점이 찍혀 있을까?

그는 최초이자 최고의 선교사였다. 그의 핵심사역은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와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서 제자양육을 하였다. 만일 그가 이렇게 전략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한 원주민에게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은 대학선교가 으뜸이고 다른 사역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말이 아니다. 단지 결의의 더 중요한 사역을 방치한 채 비행기 타고 먼 나라로 가는 선교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함이다. 오늘의 대학촌은 영적으로 너무나 썰렁하다. 호호통제(嗚呼痛哉)라.

jrsong007@hanmail.net

대학은 사회 모든 곳을 적시는 일종의 물 근원과 같다. 여기 물이 청류인지 탁류인지에 따라 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 대학선교는 역문화적으로 올라가며 연합적 대오를 형성할 때 열매가 크다.

12세기 당시는 상업과 무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이해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이 요구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측면이다. 당시 대부분의 대학은 황제나 국왕 또는 교황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것이 관례였다. 연구 단체와 국왕 등의 지배세력의 이해타산이 서로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와 파리대학이었다. 대학 문화의 시각으로 보면 중세는 긴 어둠의 터널이었다. 지식인들은 가톨릭교회에 놀린바 되어 그 잠재력을 창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학은 문예부흥과 급속 활자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대학인을 깨우는 방편으로 문예부흥이 소프트웨어라면 급속활자는 일종의 하드웨어인 셈이 되었다.

이렇게 미국에는 한국의 15배가 넘는 약 4500개 대학이 있다. 특히 미 대학가에는 5대양 6대륙에서 차출되어 와 있는 약 110만 명의 영재들이 있다. 저들 유학생들 중 다수는 일당백, 천 이상을 할 장래가 촉망된 자들이다. 교회에서 선교차 그 나라에 간다 해도 저들은 쉽게 만날 수 없으며 더구나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말 붙이기도 어렵다. 현대 저들이 제 발로 우리 곁에 와 군(群)을 이루고 있으니 이런 기회를 놓쳐서

3. 한국과 미국의 대학 실태

1. 대학의 기원

대학은 중국 주나라 국학이나 플라톤 아카데미(BC 387년)를 기원으로 한다. 그러나 지금과 비슷한 형태의 대학은 일반적으로 중세 수도원이나 성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신학과 철학 교육을 기원으로 간주하고 있다. 먼저 중세대학의

2. 최초의 대학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① 바울의 고향 다소



강태광 목사 (월드웨어USA대표)

기독교 역사상 바울만큼 중요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전 기독교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울이라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독일 괴팅겐신학교 신약신학 교수였던 거드 루데만 박사는 기독교의 창시자를 바울이라고 주장합니다. 루데만의 말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바울의 공로는 왕성한 선교를 통해서 나사렛 변방의 예수 운동을 세계적인 종교로 격상시켰고, 그의 서신서들을 통해 탄탄한 기독교 교리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과 사역과 서신에서 가장 잘 담아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화하고 이론화한 기독교 실천가요 이론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토록 잘 준비된 바울의 삶과 사역은 위로는 하나님의 섭리요, 아래로는 부모들과 바울 자신의 치밀한 준비가 빛어낸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아이들을 준비시킨 부모들 노릇을 살피며, 아울러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훈련과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로 반응한 바울도 살피려 합니다.

사도바울은 유대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클라우스너(J. Klausner) 박사는 의견을 인용하면서 바울의 아버지는 갈릴리의 가버나움 북쪽에 위치한 기살라(Gishala) 출신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갈릴리를 침략할 때 갈릴리 지역을 떠나 다소로 이민을 갑니다. 그곳에서 길리기아의 특산물인 염소털(Cilicium)로 만드는 의류, 침구류, 천막들을 만드는 수공업에 성공하여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다소는 길리기아의 대표적인 도시였습니다. 당시 다소의

적 환경은 다소를 당시에 융성한 무역도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소의 사람들은 길리기아(Cilicia) 평야에서 기른 염소

털(Cilicium)이라 불렀습니다. 당시 다소는 발달된 내륙 도로망과 항구를 통해 물류유통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이런 다소에서 정착



스토아학과 거점 교육도시 다소, 바울 부모도 교육열 높아 디아스포라로 선교사 되기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

인구는 약 50만 정도였고 동방에서 오는 오랜 상업도로가 지중해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 도로는 길리기아 문(Cilicia Gate)을 통과하여 타르투스 산맥 너머 로마로 가는 길과도 통했습니다. 이런 지리

에서 얻은 털과 가죽으로 직물과 텐트를 가공하는 특수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다소의 특산물인 천막은 염소의 가죽과 염소의 털로 만들었는데 염소의 털은 생산자인 길리기아(Cilicia)에서 딴 이름 킬리시

하여 큰돈을 벌었고 자신의 성공을 아들 바울의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한편 성공한 상공인이 많았던 다소는 교육열이 높은 대학도시였습니다. 고대 지리역사 학자였던 스트라보는 당시 3

대 교육 도시를 아테네,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다소로 소개합니다. 스트라보는 이어서 다소가 가장 좋은 교육도시라고 설명합니다. 다소는 좋은 선생이 많았던 아테네나 교육시설로 유명했던 알렉산드리아보다도 더 좋은 교육도시였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다소 시민들의 교육열과 다소 시민들의 부유함이 다소를 당대 최고의 교육도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다소 사람들은 교육열이 강해서 자녀들을 다소에서 공부를 시킨 다음에 더 좋은 교육환경으로 이주하는 것이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부모들이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말리엘 문학생으로 바울을 양육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도시 다소는 스토아학파의 거점 도시가 됩니다. 다소는 당시 유명한 스토아학과 학자들을 배출합니다. 예컨대 안티파터(Antipater), 라키데미스(Rachidemus), 네스터(Nester), 아데노도루스(Adenodorus), 그리고 마르쿠스 카토(Marcus Cato) 등이

준 높은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 자라며 헬라의 스토아 철학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의 인문학적 소양이 사도행전 17장 아테네 설교에서 드러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히브리파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이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비록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만큼 히브리 문화권에서 자랐습니다. 바울 부모는 철저한 유대인으로 바울을 교육시켰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바울 아버지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빗나가서 예수님 시대에 위선적인 사람들을 대표한다면 본래 바리새인들은 구약성경을 사랑하고 철저한 신앙생활을 도모했던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았던 부모들의 가정교육으로 성장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문이 자랑하는 사울왕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 부릅니다. 바울은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을 탁월하게 수용합니다. 그가 다소 디아스포라로 자랐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만일 선교사로 운명 지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장하기에 가장 알맞은 장소는 ‘다소’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1세기 선교사가 되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시16:3)

시편 16편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써 관심받고 좋아하고 누릴 것이 많았지만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성도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나누고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신분은 하나

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요 존귀한 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존귀히 여기며 옆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화 주님만을 섬기리라(시16:4)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도다." 이단이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신없이 그곳에 빨려 들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데 남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우리 입술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웃에 흠이 묻으면 더러워지듯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정성을 쏟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주님만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16:5-6)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5절 "소독이 되시고" "분깃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주신 복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실 분임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감격스럽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나의 기업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이 실로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 등듯한 것 많아보여도 나를 책임질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목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찌라(시16:7)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송축할찌라"의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최고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돌리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고해주시고 조언 주셔서 내가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혼계"는 히브리적 개념으로

볼 때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혼계를 "성령의 내적조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자적으로 받은 고요하고 적막하고 상징적으로 어두운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울 때 죄를 짓지만 성도는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고 힘든 그 때 성도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시16:8)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삽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는 뜻은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단순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기본 좋을 때나 형편이 나아질 때만 아니라 고난 받을 때나 괴로울

때나 평강을 누릴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순간순간 체험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습니다. 우편은 "하나님의 권세"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성도는 나의 오른 손에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요동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시16:9)

본절은 시편 16편 결론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받아 누릴 복입니다. 먼저 영간에 강건함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 성도를 존귀히 여기며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는 성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한분 사랑하고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심령에 혼계하시는 것

을 잘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기쁨이 넘치게 하고 이 속에 있는 기쁨이 밖으로 터져 나와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합니다. 그랬더니 나의 육체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거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마음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육체도 안전히 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포스트 코비드 시대 사역의 변화에 따른 교회 예배와 음악 (3)

오늘날 교회 예배에 주는 도전들

2) 예배와 회중들

앞서 역사적 고찰을 통해 보았듯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회중들은 모두가 각자의 맡은바 역할들이 있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참여 (Participation) 해서 최선으로 예배를 섬기게 하였다. 하지만 중세 교회의 회중들은 입을 벌려 찬송을 할 수 없었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는 그저 구경꾼으로 전락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같은 제도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로 그 이유는 잘 훈련받지 못한 이들에 의해 불려지는 찬송과 또 경건하지 못한 이들이 읽는 말씀의 고백은 거룩함이 회파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개혁을 통해 다시 회중들의 입을 열어 찬양과 말씀을 고백하게 하여 본연의 자리로 돌려놓았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회중들이 또 다시 중세교회와는 다른 분야의 구경꾼으로 전락되어져가고 있다.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오늘날 회중들은 예배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점점 더 입을 다물어가고 있다. 그냥 구경꾼처럼 보인다. 그리고는 무대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들의 연주능력과 예술적 가치 등을 판단하는 일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간다. 이 현상은

이 회중들과 함께하는 찬양에는 함께 찬양하기보다 그것을 감상하고 평가하며 "오늘 신어의 소리가 별로네, 아 참 멋진 매력적인 소리네, 혹은 앙상블이 엉망이네 etc..."

회중들로 하여금 이런 평가들이 주 임무가 되게 하는 오늘날 예배의 풍토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안타깝게 만들 것이다. 이것을 다분히 성도들에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무리이다. 이 같은 일은 회중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교육시키지 못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더 안타깝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올바른 교육을 뒤로 하거나, 또 지도자 자신이 올바른 예배관을 갖고 현장에서 잘못된 목양을 하고 있는 목회

모든 예배자들은 예배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말씀과 찬양에 크게 반응해 하나님만 존귀케 적극 참여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대두되었던 일이다. 무대 앞에 펼쳐지는 스크린이 더 이상 찬송가나 다른 악보들을 소지하고 교회에 갈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현란하게 펼쳐지는 음악적 기술들, 그리고 다양한 악기들 소리에 압도되어 그냥 구경하고 입을 다물게 된다. 이것 또한 오늘날 문명이 주는 편리함이지만 그 편리함이 독이 되어가는 현상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그것뿐인가? 목회자의 설교를 자신의 신앙적 척도에 맞추어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자들을 찾아다닌다. 특히 요즘 편리해진 인터넷을 통해서 또 더욱더 크게 활성화 되어가는 온라인 예배 교회들을 찾아 얼마 찾아 삼만리 인터넷 쇼핑을 일삼고 있다.

자들의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온전한 예배의 모형이 되는 시내산 예배처럼 올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룹과, 청중들의 역할에 대한 임무와 드림의 원리가 바로 정돈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오늘날 예배에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즉 회중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와 임무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시내산 예배의 모습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어있음을 직시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중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바 일을 다해 연주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해야 하는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무대 위의 연주자들(설교자, 찬양자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아, 오늘 목사님의 설교 참 짱이야, 좋은 윤리적 교훈들이네, etc.,, 예배음악 찬양인도자들과 연주자들

헨리 블랙커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리더십 (Spiritual Leadership)'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시대 온전한 영적 리더가 하나님께 받은 책임은 최선의 노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즉,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려는 훌륭한 연주자들로 세우기 위해 예배 지도자는 그 일을 돕는 협력자가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회중들은 예배자의 자리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여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말이다.

한편, 노진준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 본교 예배음악 철학 특강 시간에 "복음적 예배"라는 강연을 통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올바른 예배관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것은 교회 지도자가 예배를 통해 성도들이 훌륭하게 연주(Performer)할 수 있게 무대에서 열심히 조력(Helper)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함으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참 잘한다" 회중들을 칭찬하게 하도록 양보해 드러야 한다는 것이다.

(15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세브로드 예배당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뒷산장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장릉유도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5)



2. 사랑 가운데서 드러나는 장애의 의미

장애인은 불쌍하지만 쓸모 없는 존재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쓸모없을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짐이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고대 파르타에서는 건강한 아이를 살려주고 약하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죽였다. 독일의 히틀러도 조직적으로 장애인들을 제거했다.

소위 장애인들은 생산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교회에서조차 장애인 선교를 소홀히 한다. 그들은 건강한 어린이들처럼 사장이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고 전문인이 될 수도 없다. 물론 소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지만 대부분 자립하지도 못하고 남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도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생산성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를 많이 생산해내고 세탁기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만 생산적인가? 그것은 너무 물질적인 해석이다.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생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생산도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세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지식의 증가나 과학이 발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런 것들이 풍부해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힘의 생산' 뿐 아니라 '사랑의 생산'이 필요하다. 장애는 힘과

경쟁의 세계에서는 집이요, 쓸모없는 것일 수 있지만 사랑의 세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의 세계에서 비로소 장애의 의미가 드러난다. 회사 사장은 건강하고 유능한 사원을 뽑겠지만 아버지는 장애가 있는 자녀를 더 사랑한다. 사장과 관계는 효율성을 중요시 하는 힘의 나라 관계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자녀와 관계는 사랑의 나라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아담을 불구자로 보았다. 사람들에게 줄 것이 거의 없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에 짐만 되는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그가 그런 식으로 여겨지는 한, 그의 진리는 숨겨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사랑 없고 경쟁만 있는 사회에서는 분명 장애인인 짐이고 쓸모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사랑의 사회에서는 장애인인 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모두가 다 건강하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는 그런 사회는 있을 수 없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경쟁과 싸움만 있을 것이다. 장애인만 사랑 없이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

이 시대는 무엇을 해야만 능력이 증거되고 능력이 증거 돼야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만 사랑받는 존재가 된다는 가르침을 거부하고 아

개인주의, 물질주의, 관능주의가 주도하는 사회규범에 자신을 빼앗기는 우리 모두를 철저히 비판했다. 아담은 철저히 의존된 상태였으므로 우리가 주위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에만 그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우리를 향한 그의 위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나는 집이 될 뿐입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경쟁이 아닌 긍휼만이 인간의 미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믿도록 분명하게 도전했다. 이러한 도전은

장애인 아담이 드러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경쟁과 효율성에 지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

진 채로 있을 것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의 부모는 그저 그를 사랑했다. 그가 아담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들은 그를 있는 모습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주었다. 그들은 또한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그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신 자로, 곧 철저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보내신 자로 환영했다.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 근본적으로 모든 것이 바뀐다. 그 때부터 아담은 특별하고, 경이롭고, 타고난 재능이 있는 약육의 자녀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장애인은 인간이 사랑 없이

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장애인 아담을 통해 드러내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낸다.

아담은 장애를 통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이다.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심지어 자기 보호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의존적인 무력한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 받는 아들로 살았다. 이것은 자기 방어와 자기 성취에 허덕이는 현대인들에게 무언의 의미를 주고 있다. 헨리 나우웬은 이렇게 말한다: “내게는 아담의 수난이 의미심장한 예언적 증거였다. 그의 삶 그리고 특별히 그의 수난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이고 행동 지향적인 삶의 기본 전제들을 재검토하도록 해주었다.

장애인 아담이 드러내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경쟁과 효율성에 지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안식과 평안을 주었다. 장애인 아담은 철저히 무력하게 살면서 사랑 안에서 서만 인간은 살 수 있고 사랑 없이는 모두가 집이고 경쟁의 대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장애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miju92@gmail.com

선교 펴기

멕시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운전하다 보면 푸르른 들판에 크고 작은 노란 꽃들과 분홍색 꽃들이 어울려 무척 아름답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중미 사람들

지금 여기 티화나(Tijuana)를 비롯 멕시코 국경 도시들에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Haiti 등지의 수많은 중미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들이 임시로 머무는 이곳은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서 주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전부 돈을 받습니다. 저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까지 올라왔든 여러모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저들에게 복음을 심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귀하게 얻은 성구 암송 책자와 함께 작은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몇 교회건축 진행

이 어려운 시기에 몇 교회 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완전히 건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축하거나 보수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MQV 교회는 작년에 아이들 교실 2개를 건축하였고, 지금은 화장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

다. 찬양(Alabanza)교회는 매우 허술한 교회에 흙바닥이어서 콘크리트로 마무리를 했더니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벽들도 고치고 있습니다. 실로암(Siloe)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크게 건축한다고 여기저기를 이어붙이다 보니 일이 크고 복잡합니다. 한 조그만 오순절(Pentecoste)교회도 교회 옆을 조금 넓히려 하는데 그 부분도 도울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며 힘닿는 대로 다른 교회들의 건축도 도우려 합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중미인들에게 복음이 잘 심어지기를
-교회 건축들이 은혜롭게 진행되기를
-Covid-19이 속히 물러가서 영화 상영과 교도소 사역이 재개되도록
-우리 아이들 에스더와 바울을 위해

최재민 선교사
4mexico@daum.net

...교회음악

(14면에서 계속)

뛰어난 오케스트라 연주에서의 지휘자는 단원들이 분명한 역할을 하게 지도함으로써 훌륭한 소리를 뽑아내어 아름답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지난 2008년 1월 필자는 월트디즈니 콘서트 홀(Walt Disney Concert Hall)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마리

스 얀손스(Mariss Jansons, 1943-2019)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오케스트라 그룹의 하나인 왕립 콘서트헤비우 오케스트라(Royal Concertgebouw Orchestra)와 함께 브람스 교향곡 2번(Symphony No.2 in D major, Op.73 by J. Brahms, 1833-1897)을 연주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게 되었다.

100여명에 가까운 단원들이 각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연주자들 거의 모두가 의자에 몸을 맞기보다는 음악에 맞추어 엉덩이를 버쩍버쩍 들어가며 흥분에 겨워 연주하는 모습은 시종일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머리를 빼죽빼죽 세우게 하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감동의 연속이었던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된다. 이 지휘자와 연주

자들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예배 지도자와 회중들이 행해야 할 올바른 임무인 것이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모든 예배자들은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설교자들은 주연배우의 마음이 되어 갖은 미사어구를 써가며 회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말씀을 전하려는 것에서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존

귀케 하기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 음악인들 또한 철저히 기능, 수단이 되어야 할 음악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아름다운 예술의 세계에만 심취되어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망상에서 모두 벗어나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귀케 하기위한 협력자 역할의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한다.

한편 회중들은 입을 굳게 다

물고 예배를 평가하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무대에서 흘러나오는 말씀과 찬양에 크게 반응하여 하나님만을 존귀케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Participation)해서 전심으로 드리는(Giving)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모세의 시내산 예배에서 찾을 수 있는 예배의 본질이다.

iyoon@wmu.edu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Midwest University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3. 영주권 스폰 가능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출처 : jp@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낮선 땅에 뿌리내린 희망!

TGC, 이민 2세 유진박 목사가 들려주는 영화 '미나리' 가치와 관람포인트 소개

영화 '미나리'는 희망을 찾아 미국 이민을 선택한 어느 한국 가족의 삶을 그린 영화로 2020년 선댄스영화제 드라마틱 경쟁부문 심사위원 대상과 관객상을 받았다. 그리고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 감독상(정이삭), 각본상(정이삭), 남우주연상(스티븐 연), 여우조연상(윤여정), 음악상(에일 모세리) 후보에도 올랐다.

스티븐 연, 한예리, 윤여정 등 세 배우뿐 아니라 아역 배우까지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연기를 선보이며, 리 아이작 정 감독은 화제의 인물이 됐다. 병아리 감별사로 10년을 일하다 자기 농장을 만들기 위해 아칸소의 시골마을로 이사온 아버지, 아칸소의

황량한 삶에 지쳐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픈 어머니, 딸과 함께 살려고 미국에 온 외할머니. 영화는 어린 아들 데이빗의 시선으로 그들의 모습을 포착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안간힘을 썼던 사람들의 정직한 기록이다.

이민 2세로,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사역하고 있는 유진 박 목사는 이 영화는 "구속의 활로 감싸는" 교훈이 감춰져 있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고, 오히려 신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묘사하고 있기에 크리스천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한다('Minari' Searching for Eden in Arkansas).

이삭 정(Lee Isaac Chung) 감독의 영화 '미나리'의 예고편을 처음 봤을 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설레는 마음으로 들렸다. 지역사회 사람들은 이민 2세로서 어린 시절의 모습을 공감하는 카타르시틱인 눈물을 예상하며 전화기가 폭발할 정도로 내게 전화를 했다. '미나리'를 실제로 본 후로 내 어린 시절의 향수나 트라우마로 인한 눈물은 말라버렸다. 하지만 내 영혼은 충만해졌다.

정 감독은 자신이 양육 받으면서 느꼈던 기분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식으로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다. 오히려 "영적인 문제와 인간이 된다는 것, 남자가 된다는 것, 실패할 때의 느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 했다.

크리스천인 정 감독은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써 보내왔다.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희망하며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때로 한국계 미국인들은 인종차별로 지역사회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며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문화적이고 언어적인 장벽으로 인해 가족 내에서도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소망은 이러한 분명한 분열을 뛰어 넘어 이 영화의 배경과 사람들 안에서 인간의 이야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리'는 우리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이며 "본향을 찾는" 이들이라는 히브리서 11장 13-14절의 진리가 생각나게 한다.

에덴동산을 향한 꿈

엄선된 극장에서 현재 방영

되고 있는 이 영화는 '크고 위대한 정원'을 만들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안락함에서, 아름답지만 외로운 아칸소의 오자크로 가족을 이끄는 제이콥 이스티븐 연 분)의 뒤를 따른다. 그는 "미국 최고의 흙"을 사용하여 자기 농장의 농작물이 풍부하고 수익성이 있기를 희망한다.

정 감독은 관객들이 에덴동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을 공감해주시기를 바랐다. 그는 내게 자신의 이러한 바람을 말해줬다.

"무엇보다도 대부분을 쓰는 데 가장 크게 참고한 자료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정원과 농사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정원 속의 배신과 구속의 중요한 순간을 배치하는 듯합니다. '미나리'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지만 그 중심은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고 성공적인 농부가 되는 것이 상이 된다. 건강한 남자와 남편, 아버지와 친구로 자신을 일구는 것도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 정원의 샘플 찾기

에 물을 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면서 외부의 도움에는 회의적이다. 충분한 노력과 기지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지탱해줄 우리의 우물을 찾는다.

크리스천으로서 정 감독은 우리가 어디에서 영원히 묵



생수이신 그리스도께 가는 길에 더듬는 이들의 삶과 스토리 포착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인종 언어 국가 상관없이 가족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한 정원을 떠나 다른 정원을 찾고 있습니다."

영화의 중심 갈등은 번성하는 정원에 대한 제이콥의 꿈이 그의 아내 모니카(한예리 분)의 생각과 충돌하면서 발생한다. 그녀는 가족 자체가 잘되기를, 특히 심장이 약한 어린 아들(엘런 S. 김 분)에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제이콥의 정원 작업의 목표는 단지 건강한 작물을 생산하

영화 속 이야기 전개의 대부분은 제이콥이 농장 작업의 필수 요소인 수원을 찾는 데서 비롯된다. 영양이 풍부한 우물" (요4:6) -을 찾는 그의 탐색은 좌절로 가득 차 있다.

모든 정원은 번성하고 열매를 맺기 위해 물이 필요하다. 종종 우리는 성취, 부, 권력, 인정 등으로 우리 영혼의 정원을 채우려 한다. 영화 속 제이콥처럼, 우리도 스스로 자신의 정원

르지 않는 생수(요4:14)를 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영화 속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이 아니긴 하지만, 정 감독은 잘못된 곳에서 물을 찾는 것에 대해 성경적 강의로 청중에게 교훈을 주려 하지 않는다. 이 영화는 "구속의 활로 감싸는" 교훈이 감춰져 있는 "기독교 영화"가 아니다. 오히려 '미나리'는 신앙의 복잡성과 미묘함을 묘사하고 있다.

정 감독은 내게 이렇게 말했

다. "저는 스스로 다양한 믿음의 표현과 불신을 경험해 보았으며,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책에서 믿음에 접근했던 그 방식으로 저도 이 영화를 작업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다른 인물들이 작품 속에서 작가 자신의 내면생활의 한 면을 표현하거나 씨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는 자기 작품 속 인물들에게 자유로운 고백을 주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은혜와 구속을 찾도록 합니다."

미나리의 회복력

한인 이민자 가족의 아들로 서 나는 '미나리'에서 부모님의 낯선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분개심이나 오늘날 사회에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받는 정체성에 대한 좌절감 대신 내 가족의 회복력에 감사함을 느꼈다. 우리 가족을 부양하려는 부모님의 투쟁 속에서 싸움소리가 집안을 울리고 나뭇잎의 외로움을 느끼기도 했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가족이 전부였기에 서로를 의지했다.

대부분의 이민자 가족들은 쫓겨난 토양에서 쉽게 자라는 한 방허브인 미나리와 같은 회복력을 지니고 있다. 순자 할머니(윤여정 분)는 농장의 개울 근처에 미나리를 심으며 '잡초처럼 어디서나 잘 자란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물론 번성하는 농장에 대한 제이콥의 모든 꿈에 맞게 생산되는 수확 작물은 결국 미나리뿐이다.

나는 미국 교회가 특히 지금 '미나리'에서 묘사된 회복력과 교회의 지체들인 수많은 이민자 크리스천들을 주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신앙을 양육해가기가 이미 어려워진 세속화된 시대에 인종이라는 낯을 세워 분리하기보다는 다양한 그리스도의 지체 전체에서 힘을 발견한다면 어떨까? 우리 자신의 정원에서 흠로 열매를 맺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다른 '정원사들'과 더 많이 협력하고 서로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면 어떨까?

모든 인간은 '미나리'가 훌륭하게 보여주듯이 에덴동산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정원사다. 하지만 우리의 갈망을 만족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착하거나 혹은 이주한 지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더 나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천국'(히11:16)이다. 거기서 우리는 에덴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다.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이주 농부며 그곳을 항상 쉽 없이 찾고 있다. 그 여정에서 올바른 방향을 가리키고 생수가 공급되는 토양에 뿌리를 두도록 서로 도움을 주고받도록 하자.

'미나리' 속의 이(Yi) 가족이 보여주듯이 계절과 농작물은 피고 지지만 가족은 항상 지속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종이나 언어나 국가에 상관없이 영원히 가족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빛 가운데 살아가자.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